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8호 HYUNBULNEWS.COM 2025년 7월 9일(음력 6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연꽃 사이 피어난 미소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물들지 않고 청정하다. 7월 서울 조계사에 피어난 분홍 연꽃도 맑고 단정하다. 연꽃 사이 피어난 미소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은 청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여름, 말없이 피어난 연꽃이 보여주는 풍경이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기독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타당한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6월 20일, 광주 등 지자체 8곳
'선교기지 등재 협의회' 구성해
선교사 사택, 학교 등 등재 추진

기독교 선교, 식민 팽창 첨병役
'문명화' 논리로 기존 종교 배제
'근대=기독교' 편향적 기억 유산화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기독교 선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선교기지가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기준인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광주 남구, 대구 중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김제시, 전남 목포시·순천시는 6월 20일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열고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를 공식 발족했다.

협의회는 선교사들이 기독교 전파를 위해 설립한 교회, 사택, 병원, 학교 등을 '기독교 선교 유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세계유산에 등재함으로써 역사교육과 문화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독교계가 내세운 선교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근거는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이 발간한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연구보고서'에 있다.

국가유산청은 보고서에서 '근대 개신교 선교기지'가 "한국의 근대화 추진의 원동력이 된 근대식 교육, 의료 기술, 건축 등의 전래 과정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이하 OUV)'라는 10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독교계는 2번 기준 '인간의 중요한 교류'와 3번 기준 '문화·전통, 문명의 독보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기독교 선교와 서구 제국주의의 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전략적 파트너였다. 기독교는 식민주의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고 식민주의는 기독교 전파에 안전한 통로와 보호를 제공했다. 근대기 식민주의의 주요 논리는 '문명화(mission civilisatrice)'였고 '기독교 전파'는 비문명 지역을 구원하려는 '신성한 의무'로 포장돼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 미국 문학평론가 에드워드 사이드는 저서 〈오리엔탈리즘〉에서 "서구가 동양을 바라보는 방식은 '지배의 전략'이자 '문명의 우월성 담론'이며, 기독교 선교는 오리엔탈리즘과 밀접하게 얽힌 문화 권력의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비교종교학자인 데이비드 치데스터 케이프 타운 대학 명예교수 역시 〈제국의 종교: 제국주의와 비교종교〉에서 "종교는 단순한 신앙체계가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 서구가 비서구 사회를 재편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치·문화 도구"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가 의료, 교육사업을 통해 사회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세계유산으로 '보편적 가치'를 충족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 근대화는 제국주의 식민 지배라는 과정을 거쳤고, 선교사들의 여러 인프라 확대 사업은 단순 자선행위가 아니라 복음전파를 위한 문명적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대화의 주요 동력을 기독교 전래로 보는 시각도 문제"라며 "이는 19세기 서구 열강과 기독교의 '문명화'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유네스코의 'OUV'에 선교기지가 부합되기는 어렵다. 비슷한 유형의 필리핀, 일본 기독교 세계유산은 현지화가 수 세기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100년 남짓의 한국 선교기지와는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기독교의 교세 확장이 근대 선교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닌 점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광복 직후 한반도 기독교 인구는 1~2% 정도로 미미했지만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기독교 편향 정책을 펼치면서 이후 기독교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정치·제도적 배경 없이 오늘날 선교기지가 '계몽과 근대화의 상징'이라는 이름으로 유산화되는 것은 당시의 실제 영향력을 뒤집는 과장된 서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병두 원장은 "기독교 선교기지가 '근현대 발전원동력 형성 공간'으로 간주되는 것은 당시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비해 과장된 해석"이라며 "선교기지가 '인류 보편 가치'를 가진 세계유산에 등재되기엔 그 내력이 너무 특정 종교의 목적과 편향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선명상 대중화 본격화
국가자격증 도입 추진

조계종 미래본부, 7월 1일 사업계획 발표

20개 사찰 프로그램 운영
입문·심화 등 과정 개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선명상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자 일반 사찰에서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성원 스님)는 7월 1일 서울 전법회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명상 대중화 사업 계획을 밝혔다.

미래본부는 국민 마음 치유를 위해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 28일부터 조계종 전국 사찰 및 기관 20여 곳에서 선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명상 프로그램은 체험과 입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을 이수한 담당 지도자 스님의 지도로 체험 프로그램은 1시간 과정과 1박 2일 과정, 입문 프로그램은 집중 2박 3일 과정과 4주 과정이 준비됐다. 미래본부는 해당 사찰과 기관에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며 사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명상 전문 지도자도 파견할 방침이다.

성원 스님은 "그동안 개발해 온 선명상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체계적인 선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본부는 본격적인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9월부터는 선명상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아카데미는 선명상 위원회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입문(4주), 심화(6개월), 전문(1년), 지도자(2년) 과정으로 구성됐다. 개발이 거의 완성된 입문 과정은 올해 9월부터 실시되며 나머지 과정들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조계종은 선명상 사업이 정착하면 과정 이수에 따라 수료증과 선명상 지도자 자격증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도자 자격증은 국가공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원 스님은 "조계종이 명상지도자에 대한 명확한 자격 기준과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공인 지도자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명상 지도자'와 '명상 지도자'의 차이와 기존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를 배제하기보다는 자격증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현대불교신문 하반기 개편

#문화면 확대
기존 1면으로 운영되던 문화면을 2면으로 확대·운영합니다. 대중문화와 문화유산, 불교학술, 해외불교까지 아우르는 지면이 될 예정입니다.

#새 연재-법인 스님의 문자 반야
조계종 교육부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법인 스님(화순 불암사 주지)이 하반기부터 '문자 반야'를 시작합니다. 스님은 불교 사자성어와 용어의 의미를 불교인문학적으로 사유하는 글을 선보입니다.

#홈페이지·모바일 리뉴얼
현대불교신문사 PC홈페이지와 모바일이 리뉴얼 됩니다. 기사 노출도를 높이고 카테고리를 새롭게 정리해 불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뉴얼된 페이지는 7월 9일 공개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성장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신 청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참회·하심·용서하라…세상 밝아진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국회 정각회 정기법회 법문
‘삼세 인과법’ 주제로 설해
“낮아져야 하화중생 가능”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7월 2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봉행된 국회 정각회 · 직원불자회 7월 정기법회에서 ‘삼세 인과법’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미래에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현생에서 전생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착한 마음을 갖고 모든 걸 용서해야 합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7월 2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봉행된 국회 정각회·직원불자회 7월 정기법회에서 ‘삼세 인과법’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이날 상진 스님은 ‘참회·하심·용서’를 강조했다. 〈천수경〉의 참회게 ‘아석소조제악업 개유무시탐진치 종신구의지소생 일체아금개참회(我昔所造諸惡業 皆由無始貪瞋癡 從身口意之所生 一切我今皆懺悔)’를 상기한 상진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라는 의문을 갖는데 이는 과거의 업을 모른 채 현재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선악의 업은 반복되는 윤회 속에서 쌓여온 것이므로, 당장의 결과만을 보고 억울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 자리의 국회의원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을 유지하려면 계속 복을 지어야 한다. 복을 까먹는다면 싸움과 갈등만 남게 된다”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악업과 벗어나기 위해서는 참회해야 한다. 현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하심과 용서도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우리는 전생의 빚으로 인해 현생에서 고통받는다. 그러므로 억울해하지 말고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을 갚는 중’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내려놓는 하심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하심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용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진 스님은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을 강조하며 부단한 실천을 당부했다. 스님은 “보시는 베푸는 마음이며, 지계는 선을 지키는 사는 것이며, 인욕은 괴로워도 참는 것”이라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려면 정진해야 하고 선한 마음의 유지는 선정을 통해 이뤄진다. 지혜는 모든 것을 통찰하는 근본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바라밀 수행은 우리를 보배로운 삶으로 이끌어준다. 이를 실천할 수 있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했다.

상진 스님은 법문 말미, 국회의원들에게 ‘하화중생(下化衆生)’을 당부했다. 스님은 “내가 낮추지 않으면 나를 보고 낮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스를 낮춰 하화중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항상 하심하며 연민과 자비로 국민을 대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이헌승 회장을 비롯해 김형동·김영배·서범수·임오경·이수진·손솔·문대림·김동아·이강일 의원과 천우정 국회직원불교신도회장 및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청사 복구 기금 이어져…“종단 안정 찾길”

신흥사 본말사 1억원 전달
계단위원회도 4000만원

조계종 총무원 청사인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이 화재로 긴급 보수에 들어간 가운데, 조속한 복구를 염원하는 마음이 모이고 있다.

신흥사 본말사 스님들은 7월 2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감사의 뜻을 전한 진우 스님은 “신흥사 문도들이 합심해 안정되게 교구를 이끌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종단 불사로 종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다. 앞으로 종단에서 본말사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회의원 삼조 스님은 “신흥사 5개 문도가 모두 복구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총무원장 스님이 리더십으로 복구를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계단위원회(위원장 태허 무관 대종사)는 7월 3일 진우 스님에게 복구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무관 대종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복구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 호압사 주지 현민 스님도 복구기금 1800만원을 전달하며 종단 안정을 기원했다. 서울 도안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은 동광 스님, 광복 스님과 함께 2000만원을 전하며 조속한 복구를 염원했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도 같은 날 3000만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마곡사, 주지 후보자 선출 산중총회

7월 17일 오후 1시 관음전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7월 17일 열린다.

제6교구본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자암 스님)는 7월 17일 오후 1시 마곡사 관음전에서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고 6월 24일 밝혔다.

후보자 자격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말사 주지 8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 4년 이상 재직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승가교육기관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산중총회 구성원은 해당 교구 재적승 가운데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교구본사에서 2년 이상 상근한 국장급 이상 종무원 △교구본사에서 걸쳐 두 차례 이상 성지 참배 △중앙종무기관 및 교구본사에서 8회 이상 결제 이력이 필요하다. ‘산중총회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종지협, 중앙아시아 순례…“이웃종교 이해 시간”

6월 24일~7월 1일, 성지순례
세계 종교 지도자 만나 교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5개 종단 대표들이 6월 24일~7월 1일 6박 8일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방문, 현지 종교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이웃종교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성지순례에는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5개 종단 대표가 참여했다.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과 종지협 운영위원장인 진경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도 함께했다.



키르기스스탄 이맘 사라시 모스크 앞에서 기념촬영하는 종교지도자들. 사진제공=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순례단들은 첫 일정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고려인 최초 정착지 우슈도베 마을을 찾았다. 마을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인 17만여 명이 처음 발을 디딘 장소다. 순례단은 고려인역사박물관을 방문해 헬렌 박 선교사의 안내로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전해 들었다.

순례단은 6월 27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판필로프 공원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소속의 젠코프 대성당을 찾아 사제들에게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28일에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종교청을 방문, 미딘 울루 카나트 부청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를 마친 순례단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모스크 중 하나인 ‘이맘 사라시 모스크’를 방문했다. 6월 30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종교위원회를 방문, 종교 평화와 실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마친 종지협 지도자들은 자은사를 찾아 조주 스님을 비롯한 현지 신도들과 반가운 해후 시간을 가졌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진각종 ‘제22회 회당문화축제’ 연다

7월 21~23일 울릉도서 개최
도보순례 · 독도콘서트 등

울릉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진각종의 ‘회당문화축제’가 올해도 찾아왔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탄생성지가 있는 울릉도 일원에서 제22회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회당문화축제, 청년문화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7월 21일 오후 7시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열리는 지역 어린이·가족 특별초청공연 그림자극 ‘늙은 개’를 시작으로, 7월 23일 도보순례 ‘회당의 발걸음을 따라’와 독도특별방문, 메인행사인 독도아리랑 콘서트 등이 이어진다.

울릉도 도보순례 ‘회당의 발걸음을 따라’는 회당 대종사 탄생지인 여래심인당(주교 법선 정사)을 출발해 총지심인당(주교 경일 정사)까지 8.1km를 걷는다. 참가자에게는 심인당순례 인증수첩과 기념품 등이 전달될 예정이다.

주민과 관광객 등 2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울릉도 저동항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독도아리랑 콘서트는 울릉도 꿈나무어린이집 원아들과 울릉도를 시와 음악으로 노래하는 울릉애가 프로젝트2 등 지역 게스트를 비롯해 육중완밴드, 안치환, 무용가 이나희 및 장단랩스, 위덕대학교 태권도 퍼포먼스팀 등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초청 내빈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을 초청해 추진하고 있는 독도특별방문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특별기획으로 마련됐다.

신중일 기자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다목적 원톱 시스템 이란?
다목적 염불법당시스템은 전기 연결없이 간단하게 들고 다니며 사용함으로 법당 50평 사용 및 산신각, 소각장, 야단법석, 방생용, USB사용과 염불소리 연출, 설법, 성우소리 연출, 편집, 녹음기능 및 전기연결로는 법당서 계속사용, 전기없이 야외에서는 9시간 사용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5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98만원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청담문도회, 내홍 봉합…“화합·전법 길로”

6월 28일, 청담 대종사 석상 앞
헌향·헌다로 ‘참회’…“수행 매진”
태원 스님 “불사 회향까지 최선”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청담문도 직계 제자 혜자 · 동광 · 광복 스님과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청담문도회 운영위원장 도호 스님이 손을 맞잡고 화합을 다짐했다.

청담문도회가 도선사 중창조인 청담 대종사 석상 조성과 사리탑 주변 성역화 불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청담 대종사의 사상을 계승해 화합과 소통의 길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다.

청담문도회는 6월 28일 서울 도선사 청담 대종사 석상 앞에서 헌향·헌다의 예를 올린 뒤 참회문을 낭독하며, 그간의 갈등을 참회하고 수행과 전법교화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청담문도 직계 제자 혜자·동광·광복 스님과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청담문도회 운영위원장 도호 스님을 비롯한 손상좌, 문도 스님들이 참석했다.

청담 대종사 석상 재조성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발생한 문도회 내 갈등은 오랜 기간 이어졌으나, 수차례 협의와 소통 끝에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대립을 멈추고 봉합의 길로 전환됐다. 특히 태원 스님은 6월 23일 문도 간 제기했던 고소 사건과 종단 호법부에 제출했던 진정을 모두 취하하며 갈등 해소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날 도안사 회주 혜자 스님은 문도 대표로 발표한 참회문을 통해 “청담 대종사 사리탑 주변 성역화 사업과 새로운 석상 조성 불사 추진과정에서 원융화합과 소통의 가치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종단과 교계 안팎에 갈등의 모습이 드러나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청담 대종사의 사상을 선양하고자 불사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소통 부족과 성찰 없는 판단으로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 과정에서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의 명예에 누가 되고, 직계 제자 및 문도 스님들 간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혜자 스님은 참회와 실천으로 더 성숙한 문도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스님은 “청담 대종사가 불교와 종단을 위해 품은 큰 뜻을 되새기며 갈등을 소통과 화합의 지혜로 풀어내겠다”며 “실추된 승풍을 회복하고 청정 도량의 품격을 되찾기 위해 참회 기도를 이어가는 등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자정(自淨)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혜자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수행자 본분을 지켜나가고 청담 대종사 선양 사업을 더욱 활발히 펼쳐가겠다”며 “도선사가 수행·참회·포교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그간의 갈등에 대해 참회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태원 스님은 “청담 대종사 성역화 불사를 위해 염려와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의 뜻을 총도감으로서 제대로 받아 안지 못했다.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태원 스님은 이어 “얼마 전 문장 법화 대종사께서 ‘큰 불사에는 마장이 따르고, 그것 또한 불사를 맡은 이가 안고 가야할 일이다. 큰스님 석상의 환지본처를 계기로 과거 도선사가 화합하던 모습으로 돌아가 불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다”며 “그 말씀을 듣고 문도회 운영위원장 도호 스님이 중간 역할을 해줘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태원 스님은 “제 불찰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직계 제자 스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불사가 회향되는 날까지 끝까지 책임감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스님들은 보존처리를 마친 새 석상 앞에 나란히 서서 손을 맞잡고, 문중 화합과 정진을 다시금 다짐했다.

INEB 활동가, 진우 스님 예방…“인류 평안 위한 교류 함께”

법륜 스님 등 6개국 15명 동참
“인류 전법 활동, 조계종 협력”


국제참여불교연대 활동가들이 7월 3일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인류평안을 위한 교류를 약속했다.

세계불교 NGO 연합체인 국제참여불교연대((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INEB)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인류 평안을 위한 국제 불교교류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INEB 소속 활동가들은 7월 3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진경 스님과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스리랑카·태국·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등 6개국 스님 및 활동가 15명이 함께했다.

법륜 스님이 각국에서 온 스님들을 소개하자 진우 스님은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건내고 “불교의 목적은 성불이고 세계적, 역사적으로 불교만큼 평화로운 종교가 없다”면서 “세계 인류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륜 스님을 중심으로 지역과 인종, 문화를 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종단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격려했다.

스리랑카 갈칸데 다마난드 스님(와폴라 라훌라 연구소장)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공동체 안에서 작은 시야로만 활동했을텐데, 이번 교류 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예방 후에는 조계사 불교대학 2층으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이어갔다. 간담회에서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조계종 운영 비전과 이해’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선’명상과 ‘젠’명상의 차이점과 출가자 감소 대응 등에 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졌다.

INEB는 1989년 태국의 슐락 시바락사를 중심으로 불교 및 사회활동가 그룹에 의해 설립된 단체다. 아시아, 유럽, 북미 및 호주 등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사회적 행동과 불교의 실천을 통합하는 사회적 참여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정토회와 법륜 스님은 INEB 가치와 활동에 공감해 창립 초기부터 주요 멤버 단체 중 하나로 활동해오고 있다.

임은호 기자

김민석 ‘종교 인식’ 검증 못 한 청문회

차별금지법–종교편향 질의 無
성경 읽은 박선원은 ‘사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종교편향적 인식과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을 끝내 검증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청문회장에서 성경을 읽어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은 언론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6월 24~25일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란이 된 후보자의 기독교 편향적 종교 인식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검증하는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진보당과 민주노동당은 청문회 후 “‘차별금지법’에 관해 질의하지 않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공직자가 개신교 근본주의 세계관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 미리 준비해 둔 성경을 꺼내 읽어 불교계로부터 ‘정교분리 위배’라는 비판을 받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교계에서 불편했던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교인권위원회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촉구한 공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조계종 종평위가 요청한 △국회와 각 정당, 공직자는 공적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과 헌법상 종교 자유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종교편향적 언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줄 것 등의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종교적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기독교 사학을 옹호하는 등 종교편향적 인식을 드러내 논란이 됐음에도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수령 기자

불교영적돌봄協 설립…”활동가 양성 매진”

6월 27일, 창립이사회 개최
병원법당 운영모델 개발 추진

임종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심리적·영적 안정을 지원하는 불교계의 영적돌봄 활동이 본격화된다.

전국비구니회 소속 불교영적돌봄연구소는 서울시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불교영적돌봄협회’를 설립하고, 6월 27일 창립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회 설립은 지난해 6월 14일 발족한 ‘불교영적돌봄가협회’를 기반으로 외연 확대와 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한 결과로, 정부가 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임종기 환자를 위한 영적돌봄 인력 양성과 교육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을 차원이다.

협회장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전 회장 본각 스님이 맡았고 현 회장 광용 스님, 종회의원 철우 스님, 불교영적돌봄연구소장 지인 스님, 그리고 현직 의료인 등 총 5인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이사진으로 참여했다.

협회는 생애말기나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정서적 치유와 돌봄을 제공할 불교 영적돌봄가 양성과 교육, 현장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문적인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영적돌봄가의 역량 강화도 함께 도모한다.

협회는 첫 사업으로 백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병원법당 운영모델 개발에 나섰으며, 서울의료원 병원법당이 제1호 시범 모델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서울의료원 법당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기도 공간과 상담 공간을 분리해, 보다 심리적 안정과 영적 위안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2020년 6명의 스님들과 자비실천 병원포교단을 결성해 병원포교에 앞장서온 지인 스님은 “병원 내 포교 환경이 아직은 많이 열악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호스피스와 영적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불교계도 그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시대에 발맞춰 영적돌봄 활동가를 양성하고 교육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위안과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불교도 '랜선 모금'…복지재단 '모금 라방'

묘장 스님 · 실무자, 사연 소개
3차례 걸쳐 250만원 모연
국제구호 모금으로 확대 계획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모금 라이브 방송 '슬기로운 자비생활'을 직접 진행하며 참여자들의 후원을 독려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복지기금 모연에 나섰다. 전통적 방식의 홍보와 모금에 익숙한 불교계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6월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유튜브 채널 '나는 절로 묘장 스님'에서 모금 라이브 방송 '슬기로운 자비생활'을 진행했다. 4월 30일과 5월 23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표이사 묘장 스님과 박미경 강북장애인복지관 맞춤지원팀장이 진행자로 나서 태어날 때부터 폐렴과 호흡곤란을 겪고 현재 선천성 소두증과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시아(9)의 사연을 소개했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야 하는 사연과 온갖 의료기기로 둘러싸인 시아의 방이 소개되자 묘장 스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시아를 가까이서 살펴온 박미경 팀장은 "우리 시아는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맑고 예쁜 아이"라며 "여러분의 긍정적 에너지를 보내주시면 잘 전달되리라 생각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댓글창에는 "지역사회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스님, 감사합니다" "시아를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에 동참합니다" "퇴근길에 시청 중입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같은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또 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궁동데이케어센터, 서호노인복지관,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등 여러 시설 관계자들도 실시간 방송을 함께하며 마음을 보탰다.

모금 방송이 진행된 공간은 묘장 스님이 주지로 있는 연화사의 스튜디오. 스님은 1시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직접 방송을 진행하고, 후원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묘장 스님은 "유튜브 모금 방송은 SNS와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자비나눔의 가치를 전하려는 시도"라며 "후원자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모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세 차례 모금을 통해 모연된 금액은 250여만원. 현장 모금에 비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참여자와 모금액이 조금씩 늘고 있는 데다, 후원자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종교에 거리감을 느끼거나 나눔을 실천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랐던 이들에게 '랜선 자비나눔'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재단은 7월에는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와, 8월에는 복지재단 라오스지부와 함께 모금방송을 하는 등 지원 폭을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MZ 찾아 쇼핑몰로 간 '불교 굿즈 팝업'

해탈컴퍼니–아이파크몰, 반다나–더현대

MZ세대 기호 맞춘 불교 굿즈 판매
"즐기다 보면 불교 자연스레 체화"



젊은 세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불교 굿즈'의 팝업스토어가 서울 대형 쇼핑몰에 열렸다.

재치 있는 불교 굿즈로 '힙'한 불교를 이끄는 해탈컴퍼니(대표 주여진·주현우)와 바반투(대표 김서현)는 각각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과 여의도 더현대서울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사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열린 해탈컴퍼니 팝업에서는 불교박람회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깨닫다' 티셔츠와 '번뇌 닦는 수건' 외에도 새롭게 제작한 '수행중' 집게, '번뇌 삭제' 키링 등의 굿즈가 판매됐다. 또 태현 스님의 '캐리커처 그리기', 묘장 스님의 '부캐 작명소' 등 체험프로그램과 인증샷 찍기 부스도 운영됐다.

주현우 해탈컴퍼니 대표는 불교 굿즈에 대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관념적인 이미지를 깨고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유쾌하게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태현 스님은 "최근 불교를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들을 '불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불교를 즐기는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며 "불교의 가르침은 굿즈에 담긴 짧은 경구나 즐거운 놀이를 통해서도 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 바반투 팝업에서는 부처님과 불교 문양을 다채롭게 디자인한 티셔츠와 모자, 합장하는 손 모양의 손톱깎이, 핸드폰 케이스, 페브릭 포스터 등이 판매됐다. 특히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이 입어 유명해진 '헤드셋붓다' 티셔츠가 큰 인기를 끌었다.

김서현 바반투 대표는 "바반투의 의류와 굿즈에 명상적 삶의 태도와 선(禪)의 미감을 담고자 했다"며 "티셔츠에 새겨진 문구처럼 '잠시 멈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팝업은 모두 해당 업체에서 먼저 입점을 제안해 마련됐다. 두 업체는 올해 하반기 부산과 대구에서 열리는 불교박람회와 다양한 형태의 팝업으로 '불교 굿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제40회 불이상 김태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여성 재가불자 단체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시상하는 제40회 불이상 수상자로 연구분야에 김태수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사진 왼쪽〉, 실천분야에 재가불자 봉사단체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대표 오시환·사진 오른쪽)'이 선정됐다.

김태수 교수는 불교와 서양철학을 아우르는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였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2008년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 초등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 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수령 기자

"자비 힘은 훈련 가능…명상으로 정서 회복"

롭상 텐진 네기 교수, 7월 2일 '선명상세미나' 강연

명상의 과학적 효과 공개
"인류 행복 위해 자비 훈련을"



"자비는 타고난 감정이 아닌 훈련 가능한 능력이며, 훈련의 핵심에는 명상이 있습니다."

세계적 명상 교육자로 꼽히는 롭상 텐진 네기(Lobsang Tenzin Negi, 사진) 교수가 현대인들이 우울과 불안, 만성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자비명상과 마음챙김을 꼽았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인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명상을 통한 자비와 사랑, 공감을 훈련하고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7월 2일 서울 동국대에서 '롭상 텐진 네기 교수 초청 선명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 국제선명상대회'의 핵심 의제를 미리 조망하고 명상 기반 교육모델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롭상 텐진 네기 교수는 에모리대학교 자비연구센터장으로 인지 기반 자비 명상 프로그램 CBCT(Cognitively-Based Compassion Training)와 SEE Learning(사회정서인성교육)을 개발했다. SEE Learning은 전 세계 약 40개국 이상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2세대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날 롭상 텐진 네기 교수는 명상을 통한 자비 훈련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서 회복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에모리대 자비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자비명상 프로그램 CBCT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의대생을 대상으로 6주간 자비명상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Cortisol)과 염증(인터루킨6, Interleukin6) 수치에서 차이를 보였다. 생리적인 변화인 우울증과 불안, 번아웃 위험을 줄이고 정신건강을 회복하는데 자비명상이 효과적인 것을 넘어 필수적임을 확인한 것이다.

네기 교수는 "미국 내 병원에서 번아웃으로 매년 400명 이상의 의료인이 자살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정서적 연결 결핍"이라면서 "자비명상은 의료인이 보다 인간적인 의료 서비스를 하게 하며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기 교수는 "명상은 마치 양치질하고 손을 씻는 것 같이 일상화 돼야 할 필수 습관"이라며 "매일 5분 갖는 마음을 돌보는 시간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일선 포교 힘쓸 전법단장 임명

7월 3일, 국제 · 어르신 등 분야
"한 명 한 명 불자 만들어 가야"



조계종이 포교 현장에서 오랜 경험으로 전문성을 쌓은 각 분야 전법단장들을 새롭게 임명하고, 전법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3일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관 3층 담소에서 '분야별 전법단장 임명식'을 열고 새로 임명된 전법단장들에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

전법단장으로는 청년대학생전법단장에 능원 스님, 국제전법단장에 문종 스님, 어르신전법단장에 가섭 스님, 연예인전법단장에 우봉 스님, 인천·강화연합전법단 공동단장에 성안·여암 스님, 연예인전법단 전법지원단장에 가수 진미령 씨가 각각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진우 스님은 "전법단장은 포교의 최일선에서 각계각층의 대중과 마주하며 불법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스님들이 궁극적으로 중생 천도를 이끌고 불자들이 성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인 만큼, 전법단장들이 일선에서 한 명 한 명 불자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편백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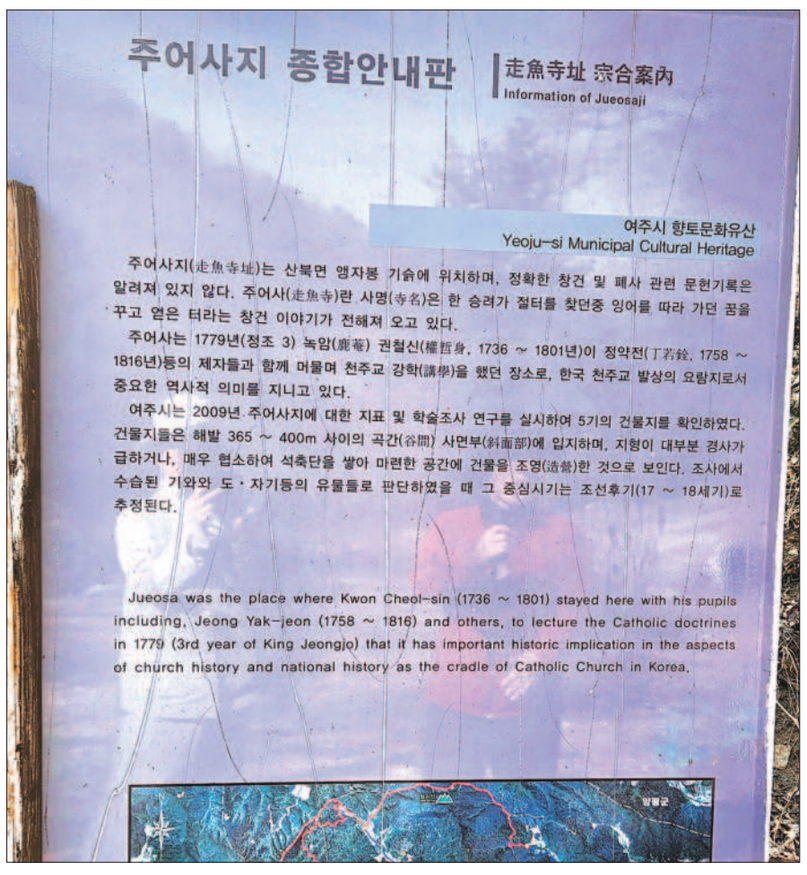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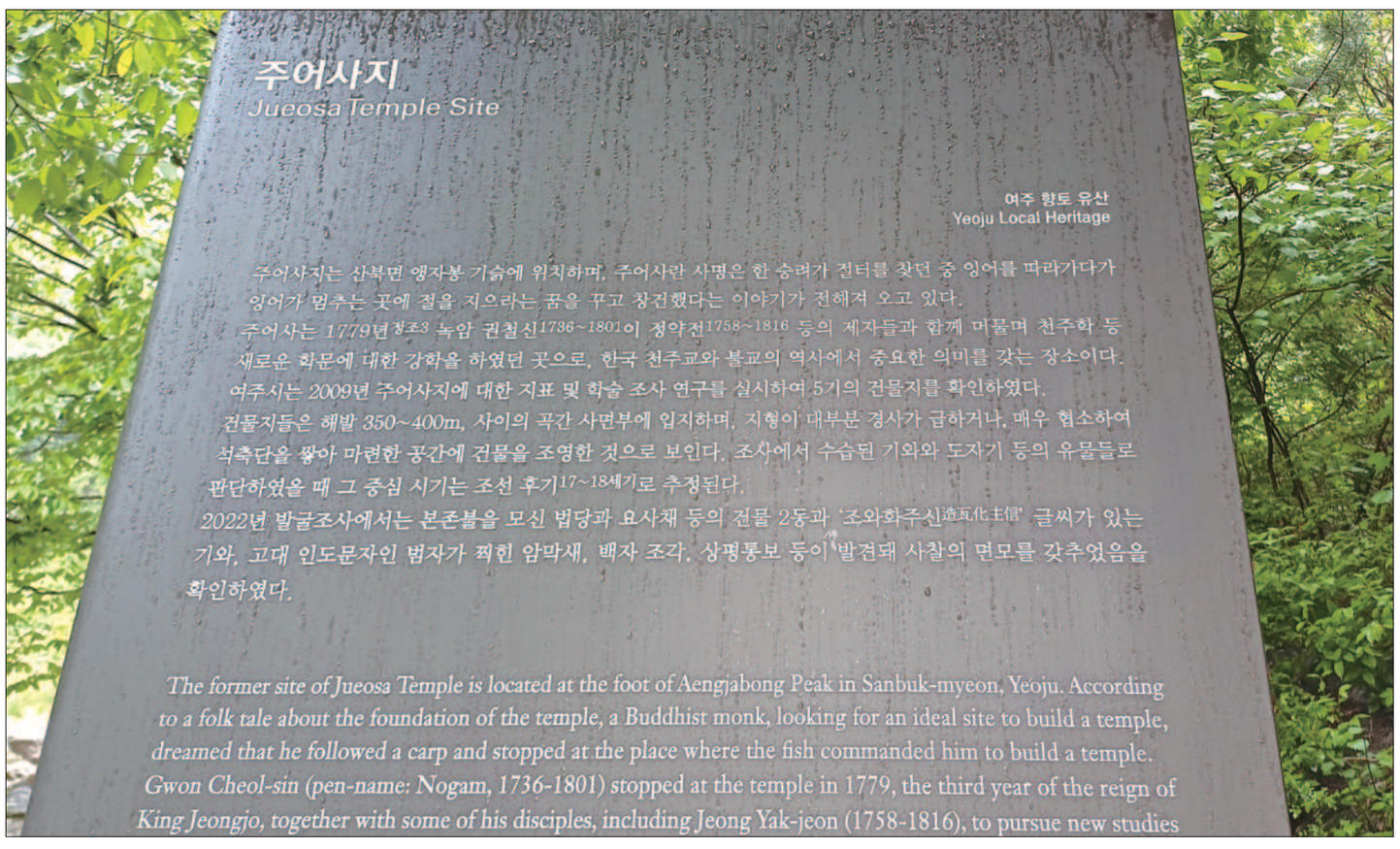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역사 왜곡’ 주어사지 안내판 15년 만에 바로잡다





기존 주어사지 안내판에는 ‘한국 천주교 발상 요람지’ ‘천주교 강학 장소’ 등 천주교 관련 서술만 부각돼 있었지만(사진 왼쪽), 새 안내판에는 불교와 천주교의 역사가 함께 서술되고 주어사의 불교사적 정체성을 반영한 문구도 추가됐다.

비구니회 · 여주시 수차례 논의 거쳐
안내판 문구 수정하고 현장 재설치
불교 · 천주교 역사 간직한 공공성지
7월 11일, 안내판 앞에서 기념행사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불교역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가 2023년 12월 6일 개최한 ‘주어사지 보존 관리방안’ 학술세미나.


전국비구니회는 2024년 4월 19일 주어사지 현장 답사를 계기로 안내판 수정 절차에 돌입했다.


2024년 8월 13일에는 여주시청을 방문해 안내판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주어사지 안내판이 재설치된 후 금해 스님, 이병두 원장, 민순의 연구위원 등이 현장을 찾았다.

천주학을 공부하던 유학자를 보호하다 폐사된 여주 주어사지에 15년간 설치돼 있던 역사 왜곡 종합안내판이 불교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수정·재설치됐다. 기존 안내판에는 ‘한국 천주교 발상 요람지’ ‘천주교 강학 장소’ 등 천주교 관련 서술만 부각돼 있었지만, 새 안내판에는 불교와 천주교의 역사가 함께 반영됐다. 그동안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의 뜻깊은 결실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여주시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사찰의 오랜 역사를 배제하고 잘못된 역사를 전하고 있던 주어사지 종합안내판을 재설치하는 소중한 결과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전국비구니회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주어사와 천진암이 천주교 성지로 둔갑되고, 그 과정에서 불교 역사가 철저히 배제된 현실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잊혀진 불교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2021년에는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하남사암연합회, 아리담문화원 등과 함께 ‘불교역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주어사지의 불교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공부모임과 현장답사, 좌담회, 포럼 등을 이어왔다.

안내판 수정 작업은 2024년 4월 19일, 전국비구니회의 주어사지 현장 답사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현장에서 기존 안내판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한 뒤, 회장 광용 스님과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즉각 수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등과 ‘임시 모임’을 구성해 자료 수집과 전문가 자문을 병행했다. 수차례 논의와 문서 검토 끝에 2024년 7월 말 여주시청에 공문을 제출했고, 8월 13일에는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가 면담도 진행했다.

행정 절차상 작은 글자 하나 바꾸는 일조차 쉽지 않았지만, ‘성공 여부를 떠나 새로운 계기와 토대를 마련한다’는 일념으로 흔들림 없이 활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 2024년 12월 말, 여주시청으로부터 안내판을 수정·재설치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고, 최근 새 안내판이 현장에 세워졌다.

비구니회가 제안한 내용 전부가 반영되진 않았으나, 핵심적인 부분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주어사의 불교사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 기존 문구인 ‘정확한 창건 및 폐사에 대한 문헌 기록은 알려져 있지 않다’는 내용은 새 안내판에서 보완됐다. 2022~2023년 불교문화유산연구소의 주어사지 정밀 발굴조사에서 본존불을 모신 법당과 요사채로 추정되는 건물터 2동, ‘조와화주신(造瓦化主信)’ 명문 기와, 범자(梵字)가 찍힌 암막새, 백자 조각, 상평통보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안내판에는 해당 사실을 추가 명시해 주어사가 사찰터임을 분명히 했다.

또 기존에 ‘1779년(정조 3) 녹암 권철신과 제자들이 머물며 천주교 강학을 했던 장소로, 한국 천주교 발상의 요람지’라고 천주교 위주의 역사만 담고 있던 문구는 ‘1779년 녹암 권철신이 정약전 등 제자들과 함께 천주학 등 새로운 학문을 강학한 장소이며, 한국 천주교와 불교 역사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수정됐다. 불교와 천주교 등 다양한 역사를 간직한 공공 성지로 거듭난 셈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천주교만의 왜곡된 역사가 담긴 종합안내판은 오랜 시간 인터넷과 언론매체를 통해 퍼져 나가면서, 이를 접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공식적인 역사처럼 인식돼 왔다”며 “그럼 결국 진정한 역사는 점차 잊히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에 가능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첫걸음이자, 앞으로 더 많은 성과로 이어질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7월 11일 주어사지 안내판 앞에서 종합안내판 수정·재설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주어사지, 역사를 다시 세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회장 광용 스님 인사말에 이어 주어사지에 대한 전국비구니회 활동(수석부회장 수경 스님)과 종합안내판 수정·설치 의의(불교역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장 송탁 스님), 조선 사회 속 불교의 흐름(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주어사지 스님들의 용기와 자비실천(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등이 발표된다.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11월02일 출발~11월07일 도착(6일 일정)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남걀사원,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달라이라마 친견 및 남인도 아잔타석굴 순례 9일
10월31일 출발~11월08일 도착(9일 일정)
남인도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산치대탑등을 순례하고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일정입니다.
■ 일정: 인천-델리-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산치대탑-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달라이라마 친견 및인도성지순례 12일
10월28일 출발~11월08일 도착(12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9월10일 출발~9월15일 도착
■ 일정: 인천-남경-지장보살 구화산-항주-관음보살 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 일정: 인천-북경-대동-운강석굴,화엄사-현공사-오대산 5대 순례-북경-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9월23일~30일(6박8일)
■ 일정: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429만원

중국 실크로드 돈황석굴 7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월10일~10월16일
■ 일정: 인천-서안-법문사(부처님진신사리)-맥적산석굴-난주 병령사석굴-가욕관-돈황석굴-서안-인천
▶ 동참금 : 259만원

“하루 30초만 멈춰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2025 부산 글로벌 명상 문화 페스티벌’

부산시 · 조계종, 6월 28일~29일
주석 스님, ‘일상 속 명상’ 강조
시민 · 군장병 함께하는 명상 ‘눈길’
요가 · 공연 · 플리마켓 등 체험 다양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호흡 하나로 삶은 달라집니다. 5분, 아니 30초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이 곧 수행입니다”

‘2025 부산 글로벌 명상 문화 페스티벌’ 개막 무대에 선 주석 스님의 첫 강연은 명상을 특별한 수행이 아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세’로 풀어내, 행사에 모인 시민과 군 장병, 청소년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 부설 부산명상협회(BMA)가 6월 28일 쿠무다 및 송정해수욕장 야외무대에서 ‘2025 부산 글로벌 명상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부산시와 조계종 미래본부가 함께한 이번 페스티벌은 ‘마음이 선을 넘다’를 주제로 6월 28~29일 이틀간 진행됐다.

주석 스님은 지난해 광화문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주재로 열린 국제선명상대회를 회고하며 “7만여 시민과 불자들이 5분간 침묵하는 그 순간, 도심 전체가 정화되는 듯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송정 해변에서 전야제 성격으로 108배와 해넘이 명상을 진행했고, 그것이 오늘 이 자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의 수인(手印)과 호흡 명상 실습을 직접 지도하며 “왼손은 무릎 위에 두고 오른손은 바닥을 향해 떨어뜨리는 ‘항마촉지인’ 자세는 내면의 번뇌와 외부의 고통을 잠재우는 수행법”이라며 “간단한 동작과 호흡만으로도 마음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 부산 글로벌 명상 문화 페스티벌’과 ‘제16회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가 함께한 개막식에는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을 비롯해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강관범 제53보병사단장, 임말숙 부산시의원 등 각계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5 부산 글로벌 명상 문화 페스티벌’에 참여한 군장병들이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성원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부산은 바다의 기운과 사람의 온정이 어우러지는 도시”라며 “이번 명상 페스티벌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변 개막식은 성원 스님의 명상 지도로 문을 열었다. 이어 무여 스님과 덕운 스님의 명상 체험, 김경민 요가 지도자의 요가 명상, 주석 스님의 토크 콘서트, 가수 나릿의 음악 공연 등이 펼쳐졌다.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실내 공연은 전석 무료로 운영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축제는 명상과 요가, 음악 공연, 토크 콘서트, 플리마켓,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 쉼과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심주 목걸이(마음의 구슬)’ 만들기 체험이 큰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받은 화두 문구를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긴 뒤, 직접 만든 목걸이에 자신의 서원을 담아 가족, 친구와 나누며 명상이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조계종부산聯, “계율은 불자의 나침반”

7월 15일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봉행

불교의 기본 계율인 삼귀의와 오계를 새기며, 재가불자들이 불제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는 오는 7월 1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재가불자 1000여 명과 조계종 스님 50여 명이 동참해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고 자비와 절제를 다짐하는 불자로서의 서원을 다시 새길 예정이다.

전계대화상 지현 스님(관음사 회주)을 비롯해, 갈마아사리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교수아사리 원허 스님(혜원정사 회주) 등 3사 7증사가 엄숙한 예법에 따라 수계의식을 집전한다.

법회는 도량결계와 영상 개식, 참회와 관정의식, 삼귀의와 오계 수계, 수계첩 전달 순으로 진행되며, 전계사와 갈마사, 교수사의 법어 및 격려사도 마련된다. 수계불자들을 위한 관정수 채수 장면은 영상으로 공유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수계대법회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수행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삼광사, 몸·마음 살리는 사찰요리 강좌

7월 1일 개강…24명 동참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가 전통 사찰음식의 가치를 알리고 현대인의 식생활에 건강한 전환점을 제시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살리는 사찰음식 요리강좌’를 개설했다.〈사진〉



강좌는 7월 1일 삼광사 템플스테이수행관 요리실습실에서 개강했으며, 부주지 성해 스님을 비롯한 강사진과 수강생 24명이 함께했다.

강좌는 7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기본양념 만들기 △사찰식 별미 요리 △발우공양 체험 △차 활용 요리 △계절별 발효음식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강의는 사찰음식과 약선음식 전문가인 김은정 씨가 맡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가사불사·생전예수재 입재

성파 대종사 “가사, 우주 덮는 이불 생전예수재는 지옥 피하는 예방”
7월 2일 입재–8월 12 · 19일 회향

“가사는 우주를 덮는 이불이요, 생전예수재는 지옥을 피하는 지혜로운 예방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불기 2569년 을사년 윤달을 맞아 7월 2일 경내 설법전에서 ‘생전예수재’와 ‘가사불사’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가사 한 벌에는 우주의 진리와 생로병사가 모두 담겨 있다”고 가사불사의 의미를 짚고, “생전예수재는 죽은 뒤를 탓하지 말고 살아 있을 때 미리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이라고 설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7월 2일 설법전에서 ‘생전예수재’와 ‘가사불사’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법문하는 모습.

성파 대종사는 무더위에도 수행의 길을 택한 불자들에게 “지금 이 자리, 이 선택이 바로 극락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더위와 추위를 아는 존재, 향기 없는 조화와 향기 가득한 생화를 구분할 줄 아는 존재가 곧 생명 가진 수행자”라며 “지혜로운 불자가 되어야 불나방처럼 무지로 불 속에 뛰어드는 삶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불사는 재가불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을 위해 천도재를 지내며 참회의 수행을 실천하는 ‘생전예수재’와 수행자에게 공양할 전통 가사를 제작·헌공하는 ‘가사불사’로 구성됐다. 두 불사는 49일간 이어지며 가사불사는 8월 12일, 생전예수재는 8월 19일에 회향한다.

가사불사는 이날부터 영산전에 설치된 ‘가사당’에서 본격 진행되며,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의 명단도 함께 봉안된다. 가사당은 불사 기간에 전통 가사를 전시하고, 재가불자들이 직접 가사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회향일에는 영산전에서 설법전까지 가사를 이운하고 점안·공양하는 장엄한 이운법회가 거행된다.

생전예수재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불공과 법문, 천도재로 진행된다. 주요 법문은 △3재(7월 22일) 법산 대종사(조계종 법계위원장) △5재(8월 5일) 덕문 스님(통도사 율주)이 맡는다.

한편, 가사불사 도편수로는 명천 스님이 위촉돼 불사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 부산본부, 명상 걷기대회 성료

6월 28일, 휠체어 12대 전달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는 6월 28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마당에서 ‘제17회 희망세상만들기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부산 시민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후원회원 등 400여 명이 참가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에 동참했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휠체어 전달식, 싱잉볼 명상 시연, 준비체조 및 명상 걷기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생명나눔 부산본부는 매년 휠체어가 필요한 환우와 병원을 선정해 휠체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날 생명나눔 부산본부와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사)아름누리에서 후원한 12대의 휠체어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부산보훈병원 등에 전달됐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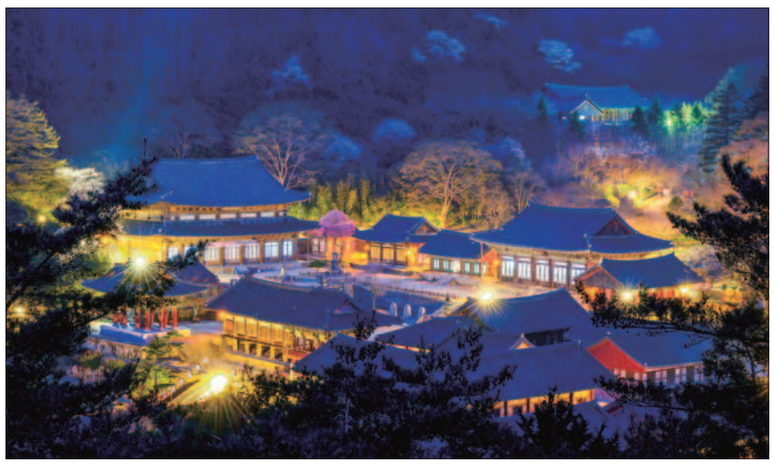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올해도 찾아온 화엄사 야간 개방 '화야몽'

7월 1일~8월 30일 네 차례
'꽃스님' 범정 스님 등 진행
명상하며 지리산 夏夜 만끽
별빛 감상, 역사투어 '다채'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름철 야간 개장을 하는 지리산 화엄사. 사진제공=화엄사

지리산에 위치한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가 올해 여름, 야간 경내 개방과 더불어 청년 스님들과 함께하는 명상 프로그램 '화야몽(華夜夢)'을 운영한다. 야간개방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며, 화야몽은 7월 19일과 26일, 8월 16일과 23일 총 네 차례 열린다.

화엄사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야간 개방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시원한 산사의 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올해 화야몽은 '찰나, 75분의 1초와 1.5℃'라는 주제와 '화엄! 어디로 그리고 언제'라는 부제를 더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화엄사 홍보국장 범정 스님(해군 대위 전역)은 "찰나의 순간을 알아차리고,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청년 스님들과 참가자들이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명상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화엄사는 2023년 8월부터 구례군과의 협의를 통해 자정까지 산문을 개방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구례에 머무는 관광객의 야간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화엄사 나종주 홍보과장은 "저녁 9시 이후 구례에는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야간 개방 이후 화엄사는 자연스럽게 저녁 투어 명소로 자리 잡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화엄사의 야간 개방은 지리산의 고요함과 별빛 아래에서 이뤄지는 특별한 치유의 시간이다. 1507m 노고단에서 불어오는 바람, 별빛과 은하수 아래 누워 명상하는 시간, 고요한 풍경 소리에 귀 기울이는 체험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화야몽'은 매 회차 10명 한정 선착순으로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으며, 세부 프로그램은 △1차 청년 스님들과의 대화, 진짜 나를 찾아라(7월 19일) △2차 자연의 소리와 차 한잔의 여유(7월 26일) △3차 차 한잔과 함께 온전한 나를 만나는 시간(8월 16일) △4차 명상의 순간, 삶의 속도를 늦추는 시간(8월 23일)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지리산 별빛 감상 △묵언 힐링 △차담과 소원 쓰기 △화엄사 역사 야간 투어 △가족 소원 축원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화엄사 야간 개방과 화야몽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려질 것"이라며 "천년의 문화유산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자타불이 마음으로 자비 실천하겠습니다"

지역 불교人 이재현 (사)붓다 봉사단장

산림조합중앙회에서의 오랜 공직생활을 마친 후 삶의 후반기를 봉사와 자비행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재현 (사)붓다 봉사단장〈사진〉을 만나 자비의 실천과 불교적 봉사의 본질에 대해 들어봤다.

"봉사는 또 다른 수행"

이 단장은 마이산 탑사의 창건주인 이갑룡 처사의 후손으로, 불심 깊은 가정에서 성장했다. 2019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자연스럽게 (사)붓다 봉사단의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현재는 10개 봉사단을 총괄하는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붓다 봉사단은 원래 갑룡장학회의 창립 정신을 계승해, 국내외에서 사회봉사를 실천하고자 설립된 단체입니다. 지금은 노인복지, 무료급식, 청소년 활동, 해외 원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비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자비는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보살행이다.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자의 봉사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장은 봉사를 수행의 연장으로 여기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일상 속 보살행'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크고 거창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실천이 모두 수행이 된다는 것이다.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인연



(사)붓다 센터에서 진행 중인 무료 국수 나눔 행사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먼 길을 마다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온 딸, 손수 농사지은 오이와 상추를 매번 챙겨오는 이웃의 따뜻한 마음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주었다.

"이 작은 인연들이 모여 큰 울림이 됩니다. 봉사라는 이름 아래, 사실은 제가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봉사 역시 그에게 또 하나의 수행이다. 그는 2022년 베트남 닥락성의 '담아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던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합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자비의 참된 의미를 배웠습니다."

"자비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붓다 봉사단은 불교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다른 종교,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특히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잔치, 장학금 기탁, 홍삼 고추장 담그기 행사 등은 세대 간 연대를 이룬 뜻깊은 활동으로 남아 있다.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며, 자연스럽게 자비 정신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단장은 자비를 '도움'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정의한다.

"자비는 끝없고 아낌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여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봉사이며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국선봉사, 예비역 불자 초청법회

창건 50주년 맞아 봉행
자광 대종사 특별법문도



호국불교의 요람인 용인 호국선봉사(주지 정행 스님)가 창건 50주년을 맞아 뜻깊은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6월 2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내 대웅전에서 열린 법회는 호국선봉사 주지를 역임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의 특별법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사진〉 법회에는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지상작전사령관, 예비역 장성 불자, 불교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자광 스님은 "내가 선봉사 주지로 처음 부임했을 당시에는 법당도 없이 창고 비슷한 곳에서 생활해야 했다"며 "선봉사가 이처럼 훌륭한 도량으로 자리잡은 것을 보니 참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백중을 앞두고 기도를 올릴 때 가족뿐 아니라 호국영령들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함께 올리자"고 당부했다.

선봉사 주지 정행 스님(이익수 법사)은 인사말에서 "김윤후 승장의 얼이 서린 호국불교의 성지 용인에 선봉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며 "창건 50주년이라는 시점에 주지 소임을 맡아 이런 뜻깊은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는 예비역 불자들을 초청해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호국불교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다. 예비역 기행병과 1기 출신 백운술 불자는 "매주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형편인데도 예비역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깊이 감동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해인사, 산불 대응 합동소방훈련 실시

7월1일 화재진압 가상훈련
팔만대장경 대피 훈련 진행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7월 1일 경내 일원에서 '2025 하안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훈련은 사찰과 사찰림, 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전 대응력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훈련은 주지 혜일 스님이 비상방재단장으로 직접 지휘에 나서 해인사 대중 스님과 종무원, 합천소방서, 가야면사무소,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의용소방대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조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수미정상탑 인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신고부터 초동 진화, 대피 유도, 현장 통제, 잔불 정리에 이르기까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에서는 경판 긴급 대피 훈련이 병행돼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해인사는 경내에 38개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했으며 자체 소방 조직과 장비도 갖추고 있다. 대중 스님과 종무원들은 평소 주기적인 방재 교육으로 화재 초기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혜일 스님은 훈련을 마친 뒤 "훈련을 반복해야만 실제 화재 상황에서 혼선 없이 대응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초기 대응 역량이 있어야 3시간이 소요될 화재 진압을 3분 안에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합천소방서장은 "해인사와 소방서가 더욱 협력해 가야산과 천년고찰 해인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조계총림 송광사 동당 법흥 대종사 원적

7월 1일 경내 화엄전서 입적
7월 5일 영결 · 다비식 엄수



조계총림 송광사 동당 도연당(度然堂) 법흥(法興) 대종사〈사진〉가 7월 1일 오전 6시 송광사 화엄전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7년, 세수 95세.

1931년 충북 괴산에서 출생한 법흥 스님은 1958년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동화사에서 사미계, 1961년 해인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0년 통도사 보광선원에서 하안거를 성만한 이래 통도사 극락선원, 표충사 내원암, 망월사, 송광사 국제선원, 상원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송광사 주지와 조계종 제4·7·8대 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2007년 원로의원을 지냈다. 2008년에는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법흥 스님의 영결식은 7월 5일 오전 10시 송광사에서 조계총림장으로 엄수됐다. 〈영결 · 다비식 차주상보〉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교사 직무연수

'괜찮지 않아도 돼' 주제
8월 4~6일, 11일 진행돼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이 오는 8월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 직원을 대상으로 8월 4~6일과 11일에 열린다. '괜찮지 않아도 돼!'를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스스로 치유하고, 학생들과 보다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연수 프로그램은 △고정관념 내려놓기 △괜찮지 않아도 돼 △아름다운 고백(생사 성찰 프로그램) △촛불명상 등으로 진행된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교사들이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동기와 마음의 힘을 회복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은 네이버폼 QR코드나 전화로 가능하다. 참가비 5만원. 055-643-0643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35사단 장병 수계법회

6월 28일 호국 충경사서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6월 28일 육군 제35보병사단 호국 충경사 법당에서 장병 200여 명과 가족이 동참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수계법회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전계아사리, 운천 스님이 갈마아사리, 진성스님이 교수아사리로 나서 장병들에게 삼귀의와 오계를 설했다.

경우 스님은 "수계는 부처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첫걸음"이라며 "오늘 이 인연을 소중히 간직해 마음을 늘 바르게 하고, 동료 장병들과도 함께 선업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국비구니회 충남지회, 軍수계법회

논산 호국연무사서…2200명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충남지회(회장 수근 스님)가 6월 28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장병 2200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정운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령 세원사 주지)이 수계법사로 법단에 올랐으며, 충남지회 소속 비구니 스님 40여 명 등이 동참했다.

정운 스님은 수계법문에서 "불교에서 계(戒)는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며, 해탈로 가는 문"이라며 "앞으로는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스스로에게 당당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한맘 불자회' 봉선사서 템플스테이

국가대표 불자선수단 구성



국가대표 불자 선수들과 현역 유망주로 구성된 '한맘 불자회'가 6월 28~29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사진〉

'한맘 불자회'는 봉선사 주지이자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장인 호산 스님이 20여 년간 주최한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출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불자 선수 모임이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마음 테라피' 명상 체험과 사찰음식 '연잎밥 만들기' 체험, 감성 숲 체험 등을 통해 신체 훈련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평안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김내영 기자

“이번 여름, 사찰서 특별한 하루 어때요?”

문화사업단, 7 · 8월 전국 56개 사찰서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체험 · 힐링 등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올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56개 사찰에서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이번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는 △특별 체험형 △어린이 캠프형 △가족 체험형 △명상 집중형 △청춘 힐링형의 총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가족, 어린이, 친구, 연인 등 참가자 성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찰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별 체험형’은 자연과 어우러진 이색 활동이 특징이다. 서울 길상사와 고양 중흥사에서는 1인 텐트 체험을, 양양 낙산사에서는 서핑과 파도 명상을, 완주 송광사에서는 도자기 만들기를, 경주 골굴사에서는 선무도 수련을 경험할 수 있다. 최근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예천 용문사), 전통 다도 수업(하동 쌍계사) 등 사찰 고유의 문화를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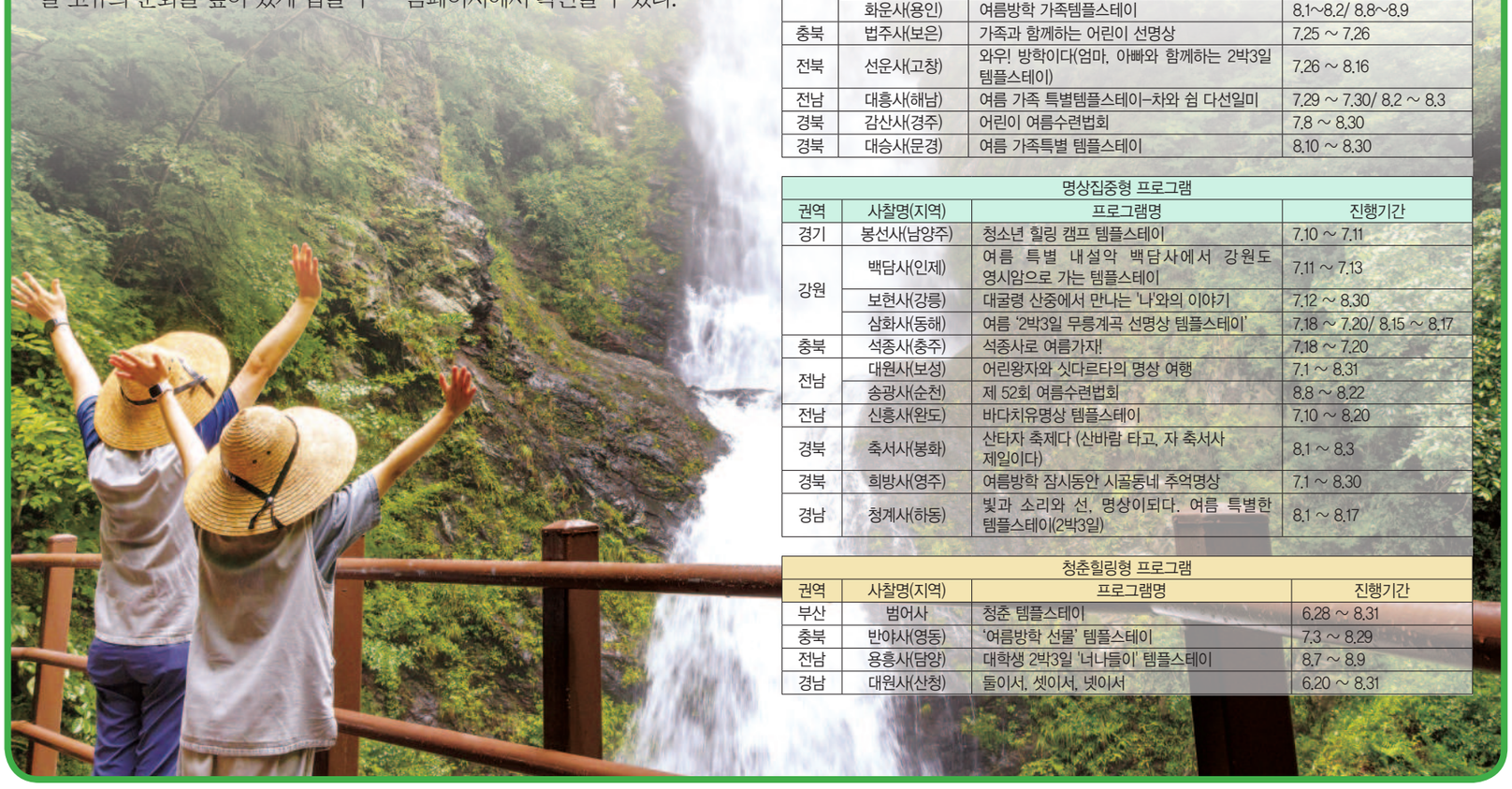
‘어린이 캠프형’은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물놀이, 레크리에이션, 수계식, 캠프파이어, 목장 체험 등 풍성한 즐길거리와 남해 용문사의 단청 그리기, 제주 관음사의 야외 설치 예술 체험 등 창의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도 포함돼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체험형’에서는 서울 국제선센터의 가족 차담, 양주 육지장사의 〈부모은중경〉 알기, 보은 법주사의 보물찾기 놀이, 성불도 게임 등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제공한다.

‘명상 집중형’은 자연 속에서 심신을 다스리는 시간으로, 트래킹·계곡물·해돋이·차·걷기 명상 등 다양한 방식의 명상 활동이 펼쳐진다.

청년층을 위한 ‘청춘 힐링형’은 108배, 편백숲 걷기, 반딧불이 관찰, 모래만다라, 죽공예 체험 등을 통해 힐링과 자기 성찰의 계기를 선사한다.

참가 신청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가능하다. 사찰별 상세 일정 및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 체험 프로그램

권역	사찰명(지역)	프로그램명	진행기간
서울	봉은사(강남)	도심속 사찰에서 여름스테이	8.9 ~ 9.27
	길상사(성북)	하룻밤 무소유	7.12 ~ 8.17
광주	무각사(서구)	절친 템플스쿨	8.10
경기	중흥사(고양)	휴(休)~ 쉬자~ 몸도 마음도 쉼을 위한 집중수련	7.1 ~ 8.31
강원	낙산사(양양)	여름특집 서핑템플스테이(2박3일)	7.11 ~ 8.24
전북	내소사(부안)	여름 서해바다와 함께하는 변산마실길 트레킹	8.8 ~ 8.10/ 8.22 ~ 8.24
전북	송광사(완주)	나를 위해 '나누고, 비우고, 채우는' 시간 –흙과 어우러지는 시간	7.19, 8.23, 9.27
전남	연곡사(구례)	어째 어째 과학교실(건강 힐링 프로그램)	7.27 ~ 7.29
	천은사(구례)	천은사 Summer	8.4 ~ 8.6
	향일암(여수)	나만의 DIY염색 템플스테이	7.28 ~ 7.31/ 8.4 ~ 8.7
경북	골굴사(경주)	주말 야외 선무도 템플스테이	6.21 ~ 8.31
	용문사(예천)	조용한 산사에서 사찰음식 만들기	7.5 ~ 8.31
	심원사(성주)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하하호호 1박2일)	7.1 ~ 8.31
경남	문수암(산청)	절로(避暑) 오면 절로(幸福)해요!	7.10 ~ 8.10
	쌍계사(하동)	전통차와 예절 or 티소믈리에 체험	7.11 ~ 9.30

어린이 캠프형 프로그램

권역	사찰명(지역)	프로그램명	진행기간
부산	내원정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나는절로-마음이절로, 웃음도절로)	7.18 ~ 7.20
경기	법륜사(용인)	어린이 여름산사수련회	7.26 ~ 7.27
충북	용화사(청주)	어린이 여름 사찰문화캠프	7.12 ~ 7.13
충남	마곡사(공주)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7.22 ~ 7.24
	수덕사(예산)	여름방학 어린이 템플스테이	7.28 ~ 7.30
전북	금산사(김제)	어린이 여름 템플스테이 '나도 쉬고 싶다'	8.1 ~ 8.3
전남	백양사(장성)	어린이 여름 명상캠프	8.9 ~ 8.10
경북	직지사(김천)	어린이 여름캠프 '마음의 꽃을 피우다!'	7.26 ~ 7.28
경남	대광사(창원)	어린이 여름템플스테이	7.26 ~ 7.27
	성주사(창원)	보리수 템플스테이 '절에서 만나는 부처님 친구들'	7.30 ~ 8.1
	용문사(남해)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7.20 ~ 8.30
	통도사(양산)	어린이 여름수련법회	7.31 ~ 8.2
세종	영평사	어린이 여름 숲속행복캠프(2박3일)	7.25 ~ 7.27
제주	관음사	어린이 여름 템플스테이 '단단하게 빛나는 내 마음의 돌부처'	8.2 ~ 8.3/ 8.16 ~ 8.17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

권역	사찰명(지역)	프로그램명	진행기간
서울	관문사(서초)	여름, 자녀와 부모가 행복해지는 숲체험 명상	7.16 ~ 8.13
	국제선센터(양천)	도반으로 만나는 하루	8.16 ~ 8.17
경기	대광사(성남)	어린이 여름 템플스테이	7.18 ~ 7.20
	봉녕사(수원)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8.23 ~ 8.24/ 8.30 ~ 8.31
	육지장사(양주)	라홀라 존자에게 배우는 인성	7.25 ~ 7.26
	정토사(성남)	사(寺)랑해 초등 템플스테이	7.26 ~ 8.23
	화운사(용인)	여름방학 가족템플스테이	8.1~8.2/ 8.8~8.9
충북	법주사(보은)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선명상	7.25 ~ 7.26
전북	선운사(고창)	와우! 방학이다(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2박3일 템플스테이)	7.26 ~ 8.16
전남	대흥사(해남)	여름 가족 특별템플스테이-차와 쉼 다선일미	7.29 ~ 7.30/ 8.2 ~ 8.3
경북	감산사(경주)	어린이 여름수련법회	7.8 ~ 8.30
경북	대승사(문경)	여름 가족특별 템플스테이	8.10 ~ 8.30

명상집중형 프로그램

권역	사찰명(지역)	프로그램명	진행기간
경기	봉선사(남양주)	청소년 힐링 캠프 템플스테이	7.10 ~ 7.11
강원	백담사(인제)	여름 특별 내설악 백담사에서 강원도 영시암으로 가는 템플스테이	7.11 ~ 7.13
	보현사(강릉)	대굴령 산중에서 만나는 '나'와의 이야기	7.12 ~ 8.30
	삼화사(동해)	여름 '2박3일 무릉계곡 선명상 템플스테이'	7.18 ~ 7.20/ 8.15 ~ 8.17
충북	석종사(충주)	석종사로 여름가자!	7.18 ~ 7.20
전남	대원사(보성)	어린왕자와 싯다르타의 명상 여행	7.1 ~ 8.31
	송광사(순천)	제 52회 여름수련법회	8.8 ~ 8.22
전남	신흥사(완도)	바다치유명상 템플스테이	7.10 ~ 8.20
경북	축서사(봉화)	산타자 축제다 (산바람 타고, 자 축서사 제일이다)	8.1 ~ 8.3
경북	희방사(영주)	여름방학 잠시동안 시골동네 추억명상	7.1 ~ 8.30
경남	청계사(하동)	빛과 소리와 선, 명상이되다. 여름 특별한 템플스테이(2박3일)	8.1 ~ 8.17

청춘힐링형 프로그램

권역	사찰명(지역)	프로그램명	진행기간
부산	범어사	청춘 템플스테이	6.28 ~ 8.31
충북	반야사(영동)	'여름방학 선물' 템플스테이	7.3 ~ 8.29
전남	용흥사(담양)	대학생 2박3일 '녀나들이' 템플스테이	8.7 ~ 8.9
경남	대원사(산청)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6.20 ~ 8.31

해외불교는 지금

달라이라마 “환생제도 존속” 발표

7월 2일 홈페이지 등 발표
외부 개입 거부 의사 천명



환생 제도 존속 관련 발표문을 읽고 있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사무국**

달라이라마가 ‘환생제도’ 존속을 천명했다.

달라이라마는 7월 2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계정 등을 통해 공개한 발표문과 영상에서 “달라이라마 환생제도를 존속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달라이라마는 “2011년 당시 티베트 종교지도자 회의에서 90세가 되는 해에 환생제도에 대한 명확한 선언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지난 14년 동안 각계각층의 수많은 경로를 통해 달라이라마 제도의 존속을 요청받았고, 이에 따라 달라이라마 제도를 존속하겠다”고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발표 영상에서 “간댄포당의 달라이라마 재단만이 미래의 환생을 인정할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달라이라마의 환생에 대한 중국이나 다른 외부세력의 개입에 거부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지난 3월 발간한 회고록 〈목소리 없는 자를 위한 목소리(Voice for the Voiceless)〉에서 “(달라이라마 제도에서) 환생의 목적은 전임자의 일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자유세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最古 사리기 복원 완료

아스카데라 사리기
‘백제 전래’ 추정돼



복원된 사리구.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아스카데라(飛鳥寺). 백제의 위덕왕이 보낸 장인과 스님들이 세운 것으로 전하는 이 사찰은 일본 최초로 불사리를 모신 목탑을 건립한 사찰이기도 하다. 7월 18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전문가들의 연구로 12세기에 화재로 손실됐던 사리기가 복원됐다”고 전했다.

아스카데라 불사리는 588년 백제 위덕왕이 사찰 건립을 위한 장인들과 함께 일본에 전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 일본 최초의 불사리 전래로 꼽힌다. 사리는 593년 완공된 탑에 봉안 되었으나 600년 후인 1196년 낙뢰로 인한 화재로 탑이 소실되면서 부지를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일부를 금당으로 이운·봉안했다.

1957년 나라문화재연구소 아스카데라 사적 발굴조사 중 원래 탑터의 중앙 주춧돌의 아래에서 원래 사리장엄구의 파편들이 발견됐다. 나라문화재연구소 측은 “발굴 당시 고대의 유물들과 함께 중세의 사리기도 함께 발견됐다”면서 “12세기의 화재 때 사리를 수습한 후 원래 사리구의 파편과 함께 사리를 다시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지원 물품 학용품, 신발, 의료물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후원 문의 02)2004-8214 2차 현지 방문 2026년 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진관사 태극기, 국보 가치 충분…태극기 박물관 필요”

진관사 등 ‘백초월 스님’ 학술세미나 개최

진관사 태극기 의미 · 가치 조명
일장기 개조 태극기 희소성 높고
당시 독립운동 의지 확인 가능해
“근대 태극기史 새길 박물관 필요”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6월 29일 서울 한문화체험관에서 열린 ‘백초월 스님 순국 81주기 및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서 진관사 태극기의 국보 승격과 태극기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배지로 착용해 국민적 관심이 고취되고 있는 ‘진관사 태극기’의 국보 승격과 태극기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6월 29일 서울 진관사 한문화체험관 흙다움에서 열린 ‘백초월 스님 순국 81주기 및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이광표 서원대 교수는 태극기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송명호 전 중부대 교수는 진관사 태극기의 국보 승격의 당위성을 각각 발표했다.

사단법인 백초월스님 선양회(이사장 법해 스님)와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불교의 호국정신을 실천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백초월 스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진관사 태극기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광표 교수는 ‘진관사 태극기의 기억과 향유: 태극기 박물관의 필요성’에서 진관사 태극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살피고 태극기 박물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진관사 태극기의 발견 과정과 태극기의 제작 방식, 함께 발견된 동반 자료 등은 모두 이례적이며 극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특징은 앞으로 진관사 태극기를 수용하고 기억하며 선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진관사 태극기의 발견 과정과 이후 언론보도 등을 예로 든 이 교수는 “진관사 태극기에 얽힌 스토리는 그 어떤 문화유산보다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역사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스토리가 대중과 공유될 때 대중은 문화유산을 더 기억하고 향유하며 후대에 전승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태극기 박물관은 진관사 태극기와 그것이 오랜 세월 감싸고 있었던 독립운동 관련 신문과 문건 등 동반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근대기 태극기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생동감 넘치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극기 전문가인 송명호 전 중부대 교수는 진관사 태극기가 국보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교수는 ‘진관사 태극기의 재조명-보물에서 국보로’ 주제 발표에서 진관사 태극기의 발견에서 보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피고, 문화유산의 지정기준에 근거해 승격 필요성을 고찰했다.

송 전 교수는 진관사 태극기가 △우리나라 사찰 중 태극기가 최초로 발견된 점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덧그린 것 중 가장 오래된 현존 태극기라는 점 △일제강점기의 자료들을 태극기에 접어 싸서 숨겨둠으로써 보존시킨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관사 태극기의 이러한 배경과 의미는 당시 사찰에서 보여준 독립의지와 항일투쟁의 한 단면이자, 태극기 제작 기법 등 변천 과정을 연구하고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 자료로 아주 희귀하고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 국기를 국보로 지정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백초월 스님이 저항과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일장기를 개조해 태극기를 만든 희소성과, 그 시대적 배경이 100년을 훌쩍 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갖는 만큼 국보로 승격 지정 보존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개회식에서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백초월 스님의 순국 81주기가 되는 해”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백초월 스님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오늘 세미나는 미래를 향한 실천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스님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나라사랑이 널리 선양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석전 스님 新발굴 한시집 담긴 내용은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석전전서 편찬 학술대회
‘석전속시초’ 해제 발표돼
임제종 운동 매진 1911년
광주감옥 투옥 사실 확인



근현대 불교 선지식 석전 박한영(1870~1948·사진) 스님의 전서 편찬 방향성 정립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서 편찬 과정에서 새로 발굴된 석전 스님의 한시집 〈석전속시초〉의 해제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부교수(석전전서사업단 팀장)는 ‘영호당 대종사의 신자료 〈석전속시초〉’를 통해 〈석전석시초〉의 내용들을 공개했다.

특히 이 중에는 석전 스님의 연보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록들이 확인돼 주목된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석전속시초〉 수록된 ‘안료원중잡감’ 13장은 석전 스님이 병원에서 눈 수술을 하며 고생했던 일과 소회를 담은 7언 절구의 한시다. 이 글의 서문에는 이 같은 기록이 담겼다.

“내 평생 만난 극심한 곤란은 세 번 있었다. 그 하나는 신해년(1911) 여름, 법망에 걸리는 액운을 만나 저 광산 감옥(광주교도소)에 들어가 귀신 무리가 돼 70여 일 갇혔다가 풀려난 것이다.”

1911년 당시 석전 스님은 이회광의 원종과 대립하며 임제종 운동에 매진했던 시기로, 김 교수는 임제종 운동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추정했다. 김 교수는 “석전 스님이 임제종 운동을 전개하던 중 일제의 사찰령에 저촉되는 빌미를 제공해 70일간 투옥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된다. 구체적 연유는 학계와 교계가 추적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총 3부로 진행됐다. △근세 불교의 비판적 지성 석전 영호(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석전의 유식·인명 주석 연구(박인석, 동국대) 등이 발표됐다.

한편, 동국대는 한국 근대 불교학과 동국 인문학 전통에 초석을 놓은 석전 스님의 전서 편찬 사업을 개교 1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신중일 기자

화엄사 중창 벽암 대사 비문,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7월1일 지정예고
‘화엄사 벽암대사비’ 등 9건


보물 지정예고된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

지리산을 대표하는 고찰인 구례 화엄사를 중창했던 벽암 대사의 비문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또한 해인사와 성주사의 불상과 전등사 명경대, 대혜보각선사서 등의 불교문화유산들도 대거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를 비롯해 △대혜보각선사서 △합천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이존좌상 및 복장유물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강화 전등사 명경대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 등 총 9건을 보물로 각각 지정예고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는 임진·병자 양난 이후 화엄사 중창 등 피폐화된 불교 중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벽암 대사(1575~1660)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입적 3년 뒤에 세워진 비석이다. 비문은 당대 영의정이었던 이경석이 짓고, 명필로 알려진 오준이 글씨를 썼으며, 전액(篆額)은 도승지를 지낸 조계원이 썼다.

이 비석은 신라시대 이래 지속되어온 귀부(龜趺, 받침돌)·비신(碑身)·이수(螭首, 머리돌)로 구성된 석비 형식을 따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스님의 비석이 많이 건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건립된 희귀한 사례로, 처음 건립된 이후 현재까지 원위치에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이라며 “비석을 세운 시기, 비문을 지은 사람, 비문 글씨를 쓴 사람, 전액을 쓴 사람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 17세기 비석 연구에 기준이 되므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대행선硏, ‘지구위기와 환경’ 계절발표회

7월 19일 안양 한마음선원서
방송인 줄리안 등 패널 참여
기후 위기 극복 방안 등 토론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및 불교적 방안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7월 19일 오후 1시 30분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에서 ‘지구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제23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계절발표회는 학술 연구 논문 발표 형식이 아닌 기후 및 환경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을 듣는 형식의 심포지엄으로 진행된다. 참여 패널들의 면면도 눈길을 끈다.

방송인이자 환경운동가로 잘 알려진 줄리안 퀸타르트 제로웨이스트샵 노노샵 대표는 ‘기후위기 극복의 열쇠 :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결정적 변화들과 세계가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를 통해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의 움직임을 소개하며, 환경인플루언서 홍다경 씨는 ‘청년이 보는 지구위기와 샛별’을 통해 청년의 시점으로 기후 위기 문제를 살필 예정이다.

박정훈 KBS 교양다큐2국 책임프로듀서는 ‘자연 다큐멘터리 PD가 바라본 지구 생태계 위기 : 〈플라스틱 코끼리〉와 대기획 〈빙하〉를 중심으로’에서 생태계 위기의 참혹한 현실을 영상과 함께 전한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생태위기와 불교적 깨달음’을 주제로 기후 위기 시대 불자들의 실천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계절발표회에서 이뤄지는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는 발표회 주제에 맞춰 ‘지구를 위한 한마음선원 공생 실천: EM 지구사랑 작은실천’을 주제로 혜눌 스님(지구사랑 작은실천 환경교육사)이 발표한다.

한편,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031-470-3277 신중일 기자

“불교 장례, ‘자연장’ 확대 필요”

은해사 등 6월 30일 학술세미나
장례 · 납골 개선 방안 논의 진행

한국사회의 화장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교 장례·납골문화가 봉안당(납골당)에서 자연장으로 확대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덕조 스님)와 불교신문(사장 수불 스님)은 6월 30일 서울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불교 장례·납골문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은 ‘한국불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실태와 대안’을 통해 불교 자연장 확대를 주장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화장률은 2014년 1월 77.9%에서 2025년 3월 93.9%로 10년여 동안 16% 증가해 사실상 화장이 보편적 장례로 자리잡았다.

화장의 급증은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인 봉안당의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다비’로 대표되는 화장을 장례문화로 보유한 불교의 경우 이 같은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불교계 봉안당은 186곳이 운영 중이며, 전체 봉안시설 중 32.3%에 달한다. 지역적으로 경기도(39개), 경상북도(31개), 경상남도(28개) 등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 장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산분장을 제도화 했으며, 이를 통해 산분장 이용률을 오는 2027년까지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변화하는 장례 트렌드에 따라 사찰에서 자연장지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불교계 자연장지는 총 31개소로, 이는 전체 자연장지에 18.9% 해당된다. 이 국장은 “불교계는 봉안시설 운영에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나 자연장지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자연장 분야에서는 타종교나 일반 사설 법인 참여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불교적 자연장 모델로 영천 죽림사 휴림원 추모공원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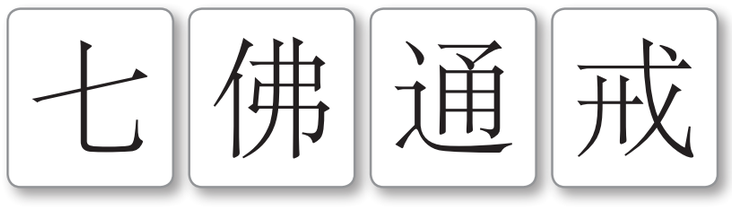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불교의 생사관과 봉안당 문화’를, 이범수 동국대 교수는 ‘한국불교 장례(장의)문화 변화 고찰’을 각각 발표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① 칠불통계

인생서 중요한 건 속도 아닌 ‘방향’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지만, 어느 순간엔 유독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왜일까?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치열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에게는 아쉬움과 결핍, 열등감이 남고, 목표를 이룬 이조차도 성취의 기쁨은 잠시, 곧 허무함에 휩싸인다.

이처럼 결핍과 허무라는 상반된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마도 ‘타는 목마름’, 즉 갈애(渴愛)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얻고 이루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점점 깊어지는 허무감. 갈애와 공허의 끝없는 악순환은 곧 현생의 윤회다.

붓다는 사성제를 통해, 갈애가 고통과 불안의 근원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갈애를 없애는 길은 무엇일까? 억누르거나 줄인다고 해결될까? 붓다는 단호하게 말한다. 갈애는 결코 해답이 아니다.

목적지는 남쪽인데, 북쪽으로 방향을 정한 채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면? 그대여, 지금 당장 방향부터 수정하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과거 여섯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은 ‘칠불통계(七佛通誡)’에 담겨 있다.

“바르지 못한 모든 행위를 하지 말고, 바른 행위를 하라.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이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다. 여기서 말하는 ‘악’과 ‘선’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 설정을 뜻한다. ‘악’은 탐욕, 분노, 이기심, 배타성으로 드러나며, ‘선’은 자비와 지혜가 일치된 삶, 평온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이다.

이 방향을 세우고, 삶의 궁극적 목적을 향해 자신을 끊임없이 성숙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정기의(自淨其意)’이며, 우리는 붓다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초심 수행자들이 모인 행자교육원에는 붓다의 제자 우바리 존자의 문구가 걸려 있다.

“신심으로 욕락을 버리고, 일찍이 발심한 출가자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며,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하게 걸어가라.”

또한, 선종의 승찬 대사는 말했다. “털끝만 한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든다.”

지금 나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마음을 청정히 하는 수행, 그 가르침이 바로 ‘칠불통계’다.

〈화순 불암사 주지〉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7/8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생전예수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출판사	6	대원지장점찰선악업보경	편집부	토방
2	원각경	김현준	효림	7	만다라 명상 컬러링 북	임시연	담앤북스
3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역주	운주사	8	마음공부에 관하여	초걈트룽파	불광출판사
4	시드니의 도반들	기후	맑은소리맑은나라	9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본지풍광설화)	성철스님	장경각
5	금강경선물(컬러링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10	선명상 마음의 평화	진우스님 외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치유하는 유식읽기(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유식30송)	서광스님 강의	공간	6	위없는 지혜:금강경반야심경 해설	에드워드 콘즈	사유수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불멸(1) 영원한 지금의 메시지 *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3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2)	비구 범일	여시아독	8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4	설우스님이 들려주는 행복한 금강경이야기	설우 스님 지음	사유수	9	상윳따니까야(1) 주제별로 모은경*계송을 포함한 가르침	각묵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10	숫타니파타-붓다의말씀	퇴현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원학 스님의 풀이로 만나는 '다부'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
한재 이목 지음
원학 스님 번역 · 해설
불광출판사 / 2만2000원



우리나라 최초의 차 노래
수행자·다인 입장서 풀이
"진정한 끽다거 정신 이어지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인 한재 이목(1471~1498)이 지은 〈다부(茶賦)〉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 노래로, 초의 선사의 〈동다송〉(1837)보다도 340여 년이나 앞선 다서다. 그는 젊은 시절 중국에서 차를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의 참다운 정신과 심오한 경지를 시로 남겼다.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스물여덟의 나이에 요절했지만, 그가 쓴 〈다부〉는 차가 기호품에 머물지 않고 인간을 깊은 내면세계로 인도한다는 가르침을 오늘에 전한다.

한재는 〈다부〉에서 글을 쓴 동기를 밝힌 후 차의 5공(功), 6덕(德), 7효능(效能)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차 정신을 피력했다. 하지만 시 형식이라 언급된 지명, 인용구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차를 공부하는 이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학 스님〈사진〉이 〈다부〉를 번역하고 해설한 책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를 펴냈다. 〈동다송〉을 풀이한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 이후 두 번째 다서 번역이다.

스님은 2001년, 다회(茶會)에서 〈다부〉 강의를 맡게 되면서 처음 이 책을 접했다. 원문을 교재로 1년 6개월 동안 강독하며 점차 〈다부〉에 담긴 사유의 깊이와 맑은 정신세계에 사로잡혔고, 직접 새롭게 번역하기에 이르렀다. 스님은 원문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행자이자 다인(茶人)으로서의 해석과 감상을 덧붙여 이해를 높였다. 특히 기존 번역서들이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오해(五害)'와 '팔진(八眞)'을 불교의 가르침에 근간해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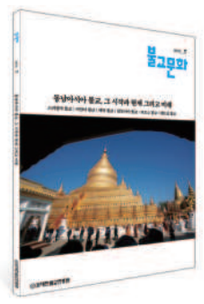
[번역] 인간에게 반드시 물리쳐야 할 다섯 가지 욕심을 깨끗이 씻어내고 여덟 가지 바른 진리를 넓혀 가야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향(茶香)에 젖어드는 것이다.

[해설] **"한재는 불교에서 수행을 통해서 다섯 가지 해로운 욕망을 극복하듯 다향의 차 수행을 통해 여덟 가지 실천적 진리를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오해(五害)는 재색식명수(財色食名壽)의 다섯 가지 해로운 욕망이며, 팔진(八眞)은 팔정도(八正道)를 말한 것이다."**

원학 스님은 7월 2일 서울 인사동의 찻집에서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한재는 '일생 동안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벗이 있다면 그것은 다우(茶友)'라고 했다. 불가에서도 고승들이 다성(茶性)을 가까이하고 다향(茶香)을 못 잊어 한 것은 수행에도 반드시 향기로운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으로,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끽다거(喫茶去)'"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스님들도 차 대신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보편적인데, 〈다부〉를 통해 끽다거의 진정한 정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잡지 7월호 미리보기

'불교문화'…동남아 불교 조명
'불광'…중생 치유하는 약사여래
'불교'…윤달, 불교 문화와 의례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월간 '불교문화'** 7월호(통권 제299호)는 '동남아시아 불교, 그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동남아 불교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 과정을 조명하고, 식민지·내전·사회주의 체제를 거치며 불교가 민족성과 공동체성을 어떻게 보존해 왔는지 살핀다.

국내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열여덟 차례에 걸친 왕국의 멸망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온 스리랑카 불교의 역사를 소개하고, 김한상 능인대학원대 불교학과 조교수는 미얀마 불교의 역사와 19세기 이후 불교 부흥 운동과 명상법 발전을 살핀다.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드바라바티 문화에서 시작된 태국 불교가 하리푼차이 전통을 계승하며 발전해 온 과정을 소개하고, 송위지 성원불교대학 학장은 '캄보디아 불교'를 주제로 기원전 3세기 아소카왕의 파견으로 전래된 불교가 힌두교와의 공존을 거쳐 상좌부 불교로 정착된 역사적 흐름을 조명했다.

정기선 미얀마 불교문화연구소장은 '라오스 불교'만의 독특한 특성을,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 원장은 '베트남 불교'를 통해 베트남 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각도로 살폈다.

불광미디어(발행인 지홍 스님)가 펴내는 **월간 '불광'** 7월호(통권 609호)는 '중생을 치유하는 약사여래'를 주제로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신앙되어 온 약사부처님을 다양한 도판과 함께 다각적으로 소개한다.

오늘날 약사신앙은 약사여래 명호를 반복해 부르는 칭명염불(稱名念佛)의 형태지만, 본래 〈약사경〉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의례들이 수록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속명번등법(續命幡燈法)과 오색루법(五色縷法)이다. 이번 호에서는 오색루법을 소개하는 한편, 중국 돈황 막고굴 벽화에 나타난 속명번등법의 시각적 자료를 살펴보며 약사신앙이 어떻게 활용되고 변모해 왔는지 고찰한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발간하는 **월간 '불교'**는 7월호(통권 764호)를 윤달 특집으로 꾸렸다. 특별기고 '윤달과 윤달의 례'(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에서는 달력에서 벗어난 달, 윤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삶과 죽음, 기억과 기도, 의례와 공덕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특히 윤달에 행해지는 불교의례들의 유래와 현대적 해석을 통해 조상에 대한 공경을 수행과 연결하는 길을 주제로 전통과 믿음이 어떻게 오늘의 삶과 만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영산작법 삼귀의례를 중심으로 본 불교의례의 본질'(이성운), '유두 보살계의 전통과 현대적 계승'(구미래) 등 다양한 시선들을 만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이웃 종교 책 읽기

명랑함에 담긴 친절과 기도



명랑 주교 유흥식
김민희 · 한동일 지음
조선뉴스프레스
1만4000원

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소년이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임명되기까지.

〈명랑 주교 유흥식〉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살아온 길과 신앙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담은 대담집이다.

김민희 '톱클래스' 편집장과 한동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바티칸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가 함께 엮은 이 책은 '톱클래스' 2023년 9월호에 게재된 인터뷰와 당시 서면 및 대면으로 진행한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한다

대전교구장 시절부터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까지, 그가 겪은 교회 안팎의 일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 마치 유 추기경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듣는 듯하다.

유흥식 추기경이 인터뷰 내내 강조한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그는 가난한 자와 약자의 편에 섰고, 만나는 누구든 웃으며 환대했으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라면 현실 정치와 사회 이슈에도 목소리를 냈다.

책 제목에도 쓰인 '명랑'은 성격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관통하는 신앙 태도를 상징한다. 유 추기경은 힘든 순간에도 '하느님은 늘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버텼고, 그러한 믿음은 웃음을 잃지 않는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곁을 지키려는 마음은 불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깨달음', '자비', '참회'는 종교의 본질이 '함께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속도와 경쟁에 사람 사이의 간극이 더욱 커진 이 시대, 유흥식 주교는 묻는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웃어주었습니까?"

책 수익금 전액은 유흥식 추기경의 요청에 따라 자립 청년 주거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여수령 기자



서양 철학자와 동양 승려의 만남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
서로 다른 전통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상가가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윤리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
피터 싱어 · 스자오후이 지음, 정환희 옮김/신국판/284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간단하고 직접적인 불교명상 안내서
통찰의 체험
현대 명상 지침서 가운데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수십 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명상을 배우는 사람에게 여전히 신선하고 살아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신국판/248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경봉 대선사 기록, 시대와 수행 경계 넘다



한국근현대 선연구
정도 스님 편찬
맑은소리 맑은나라
2만7000원

〈삼소굴일지〉 현대어 복원 〈한국근현대선연구〉로
동국대 선학과, 수행·역사 아우른 공동작업 결과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1927년 겨울, 경봉 대선사는 통도사 극락선원 삼소굴에 입방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입적하기까지 67년,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수행과 일상을 기록했다. 그 방대한 기록이 〈삼소굴일지〉로 세상에 나왔고, 이제 〈한국근현대선연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복원돼 독자들을 만난다.

〈삼소굴일지〉는 수행자의 일기를 넘어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을 아우르는 시대의 증언이며, 한 선승의 내면세계와 사찰 공동체의 삶, 승가의 풍속까지도 섬세하게 담아낸 불교사적 사료이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근현대선연구〉는 바로 이 〈삼소굴일지〉를 현대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기록의 복원만은 아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근현대 한국 선불교의 흐름과 정신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한 연구이자 수행자의 언어로 엮은 한국불교사이며, 동시에 한 시대를 살아간 선사의 내면 수행을 집단지성으로 해석한 산물이다.

총 645쪽 분량으로 구성된 이 책은 1985년 초판을 기반으로 문체와 어투를 정비하고, 한자와 한글을 병기해 가독성을 높였다. 불교학계는 물론 일반 독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고전 텍스트를 현대 독자와 연결하는 해석의 징검다리로 기능한다.

〈한국근현대선연구〉의 편찬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의 2023년 2학기 전공 수업 '한국 근현대선 연구'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해당 수업에서 〈삼소굴일지〉를 주교재로 사용했고 수업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이 공동 집필에 참여했다. 편집위원으로는 만경 스님, 선림 스님, 정인선, 한지예 등이, 발표자로는 공일 스님, 법정 스님, 혜노 스님을 비롯해 총 2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했다.

경봉 대선사는 통도사 주지와 불교전문강원 원장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헌신했으며, 대중에게도 익숙한 '해우소(解憂所)'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인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불교적 수행을 삶의 태도와 언어로 풀어낸 그의 문장들은 깊은 철학과 선적 통찰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공부이자 수행으로 읽힌다.

정도 스님은 서문에서 "〈삼소굴일지〉는 일제강점기와 전쟁, 해방 등 격변의 시대 한 수행자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이자 한국불교의 내력과 깊이를 보여 주는 거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근현대선연구〉는 단지 일지 복원에 그치지 않고, 수행의 언어로 시대를 해석한 사유의 총체이자, 후학들이 수행자의 기록을 오늘에 되살리는 공동의 학문 실천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삼소굴일지〉는 경봉 스님이 '삼소(三笑)'의 경지에 도달한 통도사 삼소굴에서 수행하며 남긴 깨달음의 기록이다. '삼소'란 염주를 찾아 헤매다 결국 목에 걸린 염주를 발견하고 허허 웃는 자각의 순간을 상징한다. 이 상징성 속에 자신의 자성을 떠나 밖에서 찾으려 했던 이가 끝내 자기 안에서 도를 구하는 여정이 오롯이 담겨 있다.

〈한국근현대선연구〉는 이 수행 일지를 바탕으로, 한 선승의 내면과 한국불교의 시대 흐름을 함께 조망한 작업이다. 학문과 수행, 기록과 해석의 경계를 넘으며, 고전 사료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한 시도이기도 하다. 매일의 수행이 축적된 이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질문을 던지는 살아 있는 텍스트로 남아 있다.

정도 스님은 경봉 큰스님의 증손자로 1975년 도승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1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 선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각사(통도사 양산전법회관) 주지, 조계종 교육부장, 한국선학회 제10대 회장 등을 지내고 현재는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중앙도서관 관장,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도철학과 불교, 사유 접점 찾다



인도철학과 불교
방법, 명상, 행위
김호성 지음
여래 / 3만원

'정년' 앞둔 김호성 교수 10번째 책
학술서 미수록 논문 8편 담아
방법·명상·행위 세 주제로 구성

인도철학과 불교는 자기를 탐구하는 철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두 전통은 스승과 제자의 만남을 통해 깨달음을 전하며, 깨친 자들의 계보를 이어왔다. 동아시아 불교의 한문 불전에도 인도 불교의 범어 전통은 깊숙이 스며 있다. 〈우파니샤드〉는 신을 밖에서 찾지 말라고 가르치며, 선불교 역시 부처를 밖에서 구하지 않도록 강조한다.

인도철학과 불교, 두 사유의 접점은 어디에 있을까. 오는 8월 정년 퇴임을 앞둔 김호성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이 질문을 평생의 화두로 삼아 열 번째 책 〈인도철학과 불교-방법, 명상, 행위〉를 펴냈다.

이 책은 인도철학과 불교를 함께 사유하는 '인불공학(印佛共學)'의 균형 잡힌 시선을 담아낸 논문집이다. 김 교수가 1997년 동국대 전임강사로 부임한 후 발표했으나 그동안 학술서에는 싣지 않은 논문 8편을 이번에 새롭게 정리해 엮었다.

책은 '방법', '명상', '행위'의 세 주제로 구성됐다. 1부 '방법'에서는 인도철학과 불교학의 공부 방법론, 독서법, 한문불전과 범어의 관계를 고찰한다. 동양적·전통적 공부방법론과 서양적·근대적 방법론의 차이를 연구하며, 힌두교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간디의 △실천적 독서법 △분석적 독서법 △선적 독서법이 불교의 텍스트 읽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범어의 완벽한 습득은 어렵지만 범어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관점도 펼친다.

2부 '명상'에서는 〈우파니샤드〉와 선의 기원, 언어적 명상과 불립문자(不立文字), 선과 힌두교의 수행론을 탐구한다. 특히 '우파니샤드와 선의 기원'에서는 신을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한 〈우파니샤드〉와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한 선불교의 교육 과정이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함께 "구조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내용적으로 개변(改變)해 온 것이 불교"라며 선의 기원을 〈우파니샤드〉에서부터 추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다.

'언어적 명상과 불립문자'에서는 명상이 곧 언어적 명상이자, 유식의 명상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또 언어가 언어를 낳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두에 의지하는 간화선이 나타났음에도, 언어는 선수행 안에서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선과 힌두교의 수행론'에서는 〈이입사행론〉을 통해 요가와 베단타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철학의 흔적을 살피면서 선불교가 인도불교의 명상전통을 흡수해 새로운 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는 화두를 던지기도 한다.

3부 '행위'에서는 '의례의 길과 수행의 길'을 통해 의례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조명한다. 저자는 의례만능의 상견(常見)과 의례부정의 단견(斷見)을 벗어나 "의례는 수행"이라는 중도적 입장을 강조한다.

배희정 객원기자

'법화경'의 시간·공간·정토 새 조명



법화경의 세계와 유토피아
장재진 지음
민족사 / 3만5000원

장재진 교수 다층적 분석 담아내
28품 고찰로 철학적·수리적 해석

불교는 철학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여기서 시간과 공간은 중생의 삶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 중 하나인 〈법화경〉에는 시간과 공간을 각각 '겁(劫)'과 '시방(十方)', 그리고 '시방세계(十方世界)'로 드러낸다. 그러나 경전 속 시공간은 비유와 상징으로 나타나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이러한 가운데 〈법화경〉에 담긴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살피고, 시공이 반영된 정토(淨土) 세계를 분석한 책이 최근 출간돼 주목된다. 장재진 동명대학교 미디어대학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최근 펴낸 〈법화경의 세계와 유토피아〉가 그것이다. 각각의 단일 주제 연구는 있었으나, 〈법화경〉에 묘사된 수기(授記)를 중심으로 시공간과 정토세계를 아우르는 선행연구는 드물어 주목된다.

이 책은 〈법화경〉 28품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경전에 함의된 세계의 구성과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책은 시간의 표현인 '겁'에 대해서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재의 시간으로, 공간 표현인 '시방'은 방위의 개념으로 바라본다. 특히 방향과 장소를 넘어 일체중생이 존재하는 세계이자,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시방세계'의 묘사도 살핀다.

이를 위해 저자는 〈법화경〉의 △시간과 수의 상징체계 △공간과 시방 △세계와 정토 등 6장으로 구성된 주제를 바탕으로 탐구한다. 방대한 시간 개념인 '겁'을 무한하고 모호한 '비유와 방편'으로 바라보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이를 산술적 계산으로 환산해 경전에 나타난 시간을 수치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석가여래가 이미 성불한 시간을 가리키는 '무량무변백천만억나유타아승기겁(無量無邊百千萬億那由他阿僧祇劫)'은 43.2 곱하기 10의 209승을 곱한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산출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시방'을 공간의 분할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장소로 이해한다. 또 '시방'은 붓다가 존재하는 전 우주를 가리키며, '시방세계'는 붓다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장소라며, 시방은 '추상적 무대'가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맺는 '실존적 공간'이라는 입장을 내놓는다.

책 후반부에서는 정토의 현대적 의미를 조명한다. 정토는 추상적이거나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와 깊이 연결된 신성한 공간으로 바라본다.

또한 이러한 정토 사상을 서양의 유토피아 이념, 동양의 무릉도원, 유가의 대동사회와 비교하면서 불교가 내세 지향적 종교가 아니라 현실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실천적 철학임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바라보는 〈법화경〉의 이상세계는 고정되고 정적인 공간이 아니다. 끊임없이 열리고 유동적으로 변하는 가능성의 장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수행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현실이다. 즉 다양한 비유와 방편으로 묘사된 시방은 궁극적으로 일체중생의 '일불승(一佛乘)'을 위한 것이라며 수행을 통해 누구나 이상세계를 현실로 나타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따라서 책을 읽다 보면, 〈법화경〉에서 묘사된 극락세계, 불국토, 불국정토는 정토와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희망의 세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책 서문에서 "〈법화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역동적 잠재력을 품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할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좋은 세상을 향한 추구는 〈법화경〉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여정이 될 것이며, 이 책이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희정 객원기자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最古)의 다경(茶經),
한재 이목의 「다부(茶賦)」!
수행자이자 다인(茶人)인
원학 스님의 해설로
차의 진면목을 만나다!



초의 선사의 『동다송』보다도 340여 년 앞서 차의 미덕을 예찬한 「다부」
그 속에 담긴 차향을 수행자의 삶에서 되살리다

「다부」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었던 한재 이목이 차와의 인연, 차의 미덕 등, 차에 대한 의견을 써내려간 부(賦, 무언가를 아름답게 그려내는 문체의 글)이다.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는 차를 수행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해 온 우리 시대 최고의 다인(茶人)이라 할 수 있는 원학 스님이 「다부」를 옮기고 풀어낸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차분한 차향 속에 잊힌 정신성과 수행의 지혜를 다시 불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

한재 이목 지음 | 삼이 원학 스님 번역·해설
224쪽 | 양장 | 22,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그대는 자비보살

부산지역 제1호 녹색사찰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

현수막 가방에 깃든 자비, 도심서 피어난 녹색불교

도심 속 수행처, 생태로 피어난 도림사
폐현수막 한 장에 담긴 자비와 불성
올해 상반기 만든 가방만 6천여 개
복지관·요양병원·공공기관 등에 전달
녹색사찰 캠페인 등 다양한 대외활동
환경 수행자로서의 길 꾸준히 걸어와
불교적 생태운동의 확산과 실천 앞장
도림사, 불교환경운동 모범 자리 잡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정찬 스님은…1972년 지홍 스님을 은사로 서봉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1979년 운문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선학원 연대선원 능인학생회 지도법사를 지냈다. 이후 1983년부터 1991년까지는 불국사 말사 심원사 주지를, 1991년부터는 조계사 말사 도림사 주지를 맡아 현재까지 수행과 포교에 힘쓰고 있다. 스님은 1995년부터 20년간 도림사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이끌었으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 이사, 동래경찰서 경승, 복지법인 불국토 이사, 부산BBS불교방송 '법소리' 지도법사로도 활동했다. 특히 도림사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앞치마 · 가방 제작, 보자기 주머니와 신문지 봉투 사용, 한지 연등 제작, EM발효액 나눔, 도심숲 정화 캠페인, 환경교육 등 다양한 생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도림사는 2021년 부산 제1호 녹색사찰로 지정됐고, 2023 · 2024년 녹색사찰대회 관세음상, 부산불교환경연대 공로상을 수상했다. 현재 스님은 부산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이자 부산여성불자회 환경자문위원으로 불교적 생태운동의 실천과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찬 스님이 신도와 함께 가방으로 거듭날 폐현수막을 세탁하고 있다.



정찬 스님이 가방 바느질에 앞서 폐현수막을 자르고 있다.



4월 14일 반야선원에서 환경운동 실천사례를 강의하는 정찬 스님.



도림사 보현회와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불교생태운동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요즘 같은 날씨는 지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진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이상기후·환경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물음 앞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이다.

그 해답을 몸소 보여주는 이가 있다. 지난 6월 9일 부산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도림사를 찾았다. 빽빽한 아파트 숲 한가운데 도심의 소음과 열기를 피해 숨은 듯 자리 잡은 절. 마치 도심 속 은신처처럼 고요하고 단정한 공간이다. 절로 들어서는 길 초입에는 산딸기가 지천으로 열려 있고, 도림사 앞 숲길에는 동네 유치원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회색 도시 한복판에서 마주한 도림사는 자연을 곁에 두고 살아가려는 선택, 일상을 정갈하게 가꾸려는 태도가 공간 전체에 배어 있었다.

도림사에서 만난 정찬 스님은 폐현수막을 가방으로 되살리고 수세미를 길러 나누고, 한지 자연친화등을 손수 만들며 '환경 수행'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다. 스님에게 환경은 실천이자 수행이며, 부처님 가르침의 확장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시작된 그 조용한 실천은 거대한 불교의 화엄세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폐현수막, 수행의 도구가 되다

한여름 절 마당. 햇살 아래 놓인 커다란 고무대야에 폐현수막이 담겨 있다. 이엠(EM)세제를 넣고 발로 밟아가며 씻는 동안 이마에는 구슬땀이 연신 맺힌다. 햇살에 말려 물기를 제거한 현수막을 정성스레 닦은 후, 작업실 안으로 옮긴다. 그곳엔 이미 여러 명의 신도들이 둘러앉아 있다. 천을 자르고 다듬고 바느질을 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절 마루 한편에서는 다 만든 가방을 들고 함께 웃음 짓는 모습이 정겹다. 그렇게 버려졌던 현수막은 누군가의 손에 쥐어질 '마음의 가방'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곳에서 폐현수막은 단지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 천 위에는 불성(佛性)과 자비의 철학, 절제의 수행, 공동체의 연대가 새겨진다. 정찬 스님이 직접 세탁하고 펼친 그 한 장의 천에는 일체유정무정 모두가 불성을 지녔다고 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긴다. 스님이 "버리면 쓰레기지만, 다시 쓰면 공양"이라 말하는 이유다.

올해 상반기 도림사에서 만들어진 폐현수막 가방은 무려 6000여 개. 가방들은 복지관, 초등학교, 요양병원, 구청, 공공기관 등으로 전달됐다. 어린이용, 노트북용, 약봉투용 등 다양한 용도의 가방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수행의 메시지를 품은 결과물이다.

정찬 스님은 이를 "걸어 다니는 환경 교육"이라고 부른다. 한 땀 한 땀에 담긴 나눔의 손길이 자연과 사람, 생명과 공동체를 다시 잇는 환경 실천이기 때문이다.

생활에서 시작된 수행, 절터를 꽃피우다

"환경 운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이지요."

정찬 스님의 말은 조용하지만 분명했다. 어린 시절 마루 밑에 쌓인 닭똥과 마당의 쓰레기를 매일 치우며 자랐다. 위생과 정리정돈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한 습관이었다. 정돈되지 않은 공간을 보면 먼저 몸이 반응했고, 낭비되는 물건이나 함부로 버려지는 것에 민감했다. 무엇이든 오래 아끼고, 쓰임을 다한 뒤에도 다시 살릴 수는 없을까 고민하는 습관은 훗날 도림사를 '녹색사찰 1호'로 일군 삶의 태도로 이어졌다.

스님에게 수행은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갈하게 접은 보자기, 다시 씻어 쓰는 유리병 하나, 손으로 길러낸 수세미 하나에도 마음을 담는다. 스님에게 불교란 생활 그 자체이며, 절제된 삶은 수행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부처님은 일의일발(一衣一鉢)로 한평생을 사셨어요. 쓰레기를 남기지 않으셨고, 청정국토를 남기셨죠. 환경은 곧 불교이고, 불교는 곧 생명을 아끼는 일입니다."

스님이 1992년 도림사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절터는 거의 폐허였다. 축대는 무너져 있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외면한 그곳에서 스님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이곳을 극락정토로 만들겠다"는 다짐은 땅을 일구는 일부터 시작됐다. 흙을 고르고 나무를 심으며 마당에 꽃을 가꾸는 작업이 이어졌다.

2018년부터 본격적인 불사가 시작되면서 도림사는 서서히 모습을 바꿔갔다. 지금은 30여 종의 꽃이 계절마다 피어나고 채소밭에는 상추와 감자, 들깻잎과 호박이 무농약으로 자란다. 도랑을 가로지르는 오솔길과 잔디밭은 단정하게 정돈돼 있고, 마당에는 까치가 뛰놀며 유치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 모든 풍경은 정찬 스님이 실천한 수행의 결실이자, 신도들과 함께 만들어 낸 조화로운 삶의 공간이다. 그 안에서 자연은 살아 숨 쉬고,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며 살아간다.

스님은 말한다.

"죽어서 가는 극락보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꽃이 피고 새가 날며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극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도림사에서는 봉제 작업을 위한 손길들이 자연스럽게 모인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함께 만든다'는 마음, '뜻을 같이한다'는 다짐이 이들을 움직인다. 스님의 외침 하나면 모두가 웃으며 제자리를 찾는다.

"나는 그냥 말단 일이나 맡지요."

스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봉제의 가장 기초적인 일부터 함께한다. 천을 나르고 가위질을 하며 재봉틀 앞에 앉는다.

봉제 작업은 스님의 뜻에 공감하고 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모인 불자들의 '자발적 수행'이다. 바느질이 서툰 이들도, 천을 처음 재단해 보는 이들도 서로 돕고 배우며 기꺼이 시간을 내어 앉는다. 그들이 만드는 것은 단지 가방이나 수세미가 아니다. 이들은 마음을 꿰매고 관계를 이어가며 정성을 바느질한다.

스님은 늘 말한다.

"이것은 환경운동이기 전에 수행입니다."

그 말에 공감한 불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이곳에 모인다. 폐현수막이 가방으로 다시 태어나고, 낡은 천이 보자기 주머니로 거듭난다. 그 과정에 담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성,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길'에 대한 실천이다.

스님의 말 속에는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도림사를 생태공동체로 만들고, 수행과 일상이 맞닿는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실천은 이제 도림사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향한다. 정찬 스님은 '안에서의 수행'에 머물지 않고, 그 정신을 바깥으로 확장시킨다. 지난해 열린 부산불교박람회에서는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스를 직접 꾸려 시민들에게 폐현수막 가방과 천연 수세미, 보자기 주머니 등을 소개했다. '지구사랑'이라는 문구가 적힌 앞치마를 두른 스님은 봉사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상담을 이어갔다. 그의 실천은 단지 결과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철학을 공유하는 전법이다.

신도들과 함께 도심 숲과 공원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펼치고, 겨울이면 낙동강으로 향해 고니들에게 삶은 고구마와 곡식을 나눈다.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의 실천은 진정한 의미의 평등공양이다.

함께 걷는 길, 실천은 알림에서 시작된다

정찬 스님은 언론을 통해 '녹색사찰 캠페인'을 제안하고, 도림사에서의 실천 사례를 적극적으로 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섰다.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환경 실천이 절 안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해야 할 수행임을 전하고자 했다. 스님이 먼저 알리고 나서는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이건 나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가야 하는 길이지요."

스님에게 실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길이며, 그 시작은 의식의 전환이다. 그래서 방송뿐 아니라 강의와 다양한 대외활동에도 직접 나선다.

지난해 불교박람회에서는 직접 만든 폐현수막 가방과 천연 수세미, 보자기 주머니를 들고 시민들과 마주했고, 올해는 반야선원 환경 강좌에 초청돼 손수 만든 물품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게 바로 부처님처럼 사는 일입니다."

알림은 곧 포교이고, 실천은 곧 수행이라는 인식 아래, 스님은 오늘도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간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도림사 안팎에서 '행동'으로 이어졌다. 도림사에서 스님과 불자들은 쉼 없이 생태 실천을 이어왔다. 보자기 천주머니 제작은 물론 사단법인 미소원과 부산여성불자회, 방곡초등학교 등과 협력해 지구사랑 가방을 제작·나눔했고, 부민복지관·재단법인 불국토·자원봉사센터·우복동 한의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환경 봉사도 꾸준히 이어왔다.

설 명절에는 간장과 식용유 선물에 지구사랑 가방을 활용했고, 공원 정화 활동, 환경 강좌와 생태 강연 등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한 친환경 수세미, 신문지 봉투, 단청 작업, 생태방생, 페트병 수집과 재활용까지 절 안에서 시작된 실천은 마을과 도시, 이웃 생명에게로 퍼져 나가고 있다.

정찬 스님의 실천은 절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폐현수막 하나를 다시 살리는 손길, 쓰레기를 줄이려는 생활의 태도, 생명을 향한 작은 배려는 수행이자 전법이며 이 시대를 향한 실천적 응답이다. 도림사에서 시작한 생태 활동은 신도와 지역사회로 확산됐고, 방송과 강의, 캠페인 등을 통해 공동체 실천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청정국토는 특정한 장소나 미래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는 삶의 방식이며, 함께 걸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길임을 정찬 스님은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26 신심과 하심



▶한줄 요약
기도는 나의 탐욕과 성냄을 가라앉히고, 보시는 나누는 마음을 키우며, 정진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줍니다.

신심과 하심으로 스스로를 비워내라

[오늘의 명상]
산중의 참꽃들은 온갖 시름 달래 주고
보슬보슬 봄 빗방울 굳은 마음 살 녹이네.
달빛 별빛 비추이니 앞날 굳이 궁금치 않고
이런 인연 저런 인과(因果) 달 머금고 구름 가듯.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신심(信心)과 하심(下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불교에 귀의한 출가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심입니다. 하심은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를 욕심 또는 탐심(貪心)이라 합니다. 탐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며, 이 본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몸에서 비롯된 본능입니다. 몸이 요구하는 본능이 채워지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배고픔, 몸의 고통, 성욕의 충족되지 않음, 잠을 못 자는 괴로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에서 비롯된 본능입니다. 정신적인 본능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또 다른 괴로움이 나타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괴로움, 명예를 더 얻으려는 괴로움, 자존심이 상하는 괴로움, 더 뛰어나지 못하는 괴로움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본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충족이나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 가진다 해도 더 큰 우주를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것이 본능의 속성입니다.

육체적 본능과 정신적 본능은 의지가 강하다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억제하거나 참을 뿐입니다. 이러한 본능은 수천, 수만, 수억, 무량겁에 걸쳐 이어져 온 업(業)의 결과입니다. 업은 업식(業識)과 업장(業障)으로 작용하며,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신심(信心)과 하심(下心)입니다.

신심은 인과(因果)를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업이 돌아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욕심, 성냄, 요행을 바라지 않고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하심은 탐진치(貪嗔痴), 즉 삼독심(三毒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본능에 끌려다니지 않고, 끝없는 과보(果報)를 받지 않으려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려니 하며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진정으로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우리가 반드시 믿고 실천해야 할 진리입니다.

기도와 보시, 정진은 이러한 실천을 돕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나의 탐욕과 성냄을 가라앉히고, 보시는 나누는 마음을 키우며, 정진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줍니다.

오늘도 신심과 하심으로 스스로의 본능을 바라보며, 감정을 비우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봄비가 굳은 땅을 녹이듯, 내려놓는 마음이 우리의 괴로움을 녹이고 평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걱정될 일은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하거늘
과보(果報)를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이요,
저지른 일은 이미 결과(과보)가 정해졌으니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걱정과 근심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욕심에 있습니다. 욕심은 단순히 크고 지나치게 원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바람, 심지어는 착한 결심과 바람조차도 욕심에 해당됩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와 같은 생각도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람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그 반대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바람이라도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과보(果報)가 따라오게 됩니다.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인과(因果)의 법칙입니다. 작은 욕심에는 작은 근심이, 큰 욕심에는 큰 걱정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착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언젠가 착하지 않은 마음을

> **탐심이라는 본능으로 괴로워**
> **충족과 만족 있지 않기 때문**
> **본능에 끄달리지 않는 삶은**
> **감정부터 내려놓아야 가능해**
> **기도와 보시로 감정 내려놓길**

경험하게 되고, 올바른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결국 빈자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업식(業識)의 인과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처럼 원하고 바라는 마음, 즉 욕심 때문입니다. 바람과 욕심이 작을수록 근심도 작아지고, 욕심이 클수록 걱정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으면 어쩌나', '저녁에 해가 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가 뜨지 않거나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인과와 인연에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은 과보로 나타날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허한 마음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괴로움과 걱정을 줄이고자 한다면, 욕심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거나 원하는 마음을 줄이고, 모든 것을 인과와 인연에 맡기는 신심(信心)을 길러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욕심을 줄이지 않고는 그 어떤 재주나 요령을 써도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와 참선, 보시와 정진을 통해 마음의 분별심을 잠재우고, 마음을 비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짊어진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지금 내게 닥친 모든 일은 내 업(業)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평화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지나갈 것입니다. 기도와 명상을 통해 욕심을 내려놓고, 과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평온한 하루를 만들어 보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⑨ 해심(海心, 海深) 스님



▶한줄 요약
해심 스님은 무염 스님의 계보를 이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불상을 만든 조각승이다.

높은 미적 완성도 보인 17세기 호남 조각승



해심 스님이 만든 광주 원각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46년).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48년).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54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1640년부터 1660년대까지 명산대찰의 부속 전각인 명부전(冥府殿)이나 영산전(靈山殿), 시·군을 대표하는 사찰의 중심 전각에 불상을 주도적으로 만든 조각승은 30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해심 스님은 무염 스님의 계보를 계승하면서 미적 완성도가 높은 불상을 만든 조각승이다. 해심 스님의 조각승 계보와 주요 활동은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좌상(도 유형문화유산) 대좌 바닥에 적힌 조성묵서(造成墨書)와 내부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밝혀졌다.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조성발원문에는 1648년 청신거사(淸信居士) 90세 김춘학(金春鶴)이 대공덕주(大功德主)로 참여했고, 화원질은 사옹(師翁) 행사(幸思), 양사(養師) 무염(無染), 수화원(首畵員) 해심(海心), 종임(宗稔), 지준(智准), 민기(敏機), 삼간(三侃), 도균(道均), 명조(明照), 경성(敬聖), 시자(侍者) 계립(戒立)과 영걸(英桀)이 적혀 있다.

그러나 대좌 바닥에 적힌 조성 묵서에는 해심 스님이 수화승으로 적혀 있고, 행사 스님과 무염 스님이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불상 제작은 해심 스님이 실제로 주도하고, 스승인 행사 스님과 무염 스님을 예우하기 위해 조성발원문에 적은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1654년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조성발원문에서 볼 수 있다.

조각승 해심 스님과 관련된 가장 빠른 기록은 1630년 김천 직지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으로, 행사 스님과 태훈 스님 등 14명의 조각승 가운데 열세 번째에 적혀 있다. 또한 3년 후인 1633년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은 무염(無染) 스님과 천언(天彦) 스님 등 총 12명이 제작한 대형 불상으로, 화원 중에 해심 스님이 여섯 번째로 적혀 있어 1630년대 전반 불상 제작에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13년 후인 1646년에 광주 원각사 목조석가여래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을 수화승으로 제작했다.

해심 스님은 1648년에 수화승으로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조성한 후, 1651년 8월에 무염 스님이 제작한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목조지장보살삼존상(보물)에 세 번째 조각승으로 참여했다.

또 1654년 3월 수화승으로 고창 문수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과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보물)을 제작한 후, 7월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보물)을 조성했다. 특히, 해심 스님이 만든 불상은 호남을 대표하는 사찰이면서 벽암각성(碧巖覺性)이 시주자로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해심 스님은 1600년 전후 태어나 1620년대부터 1630년대까지 불상 제작에 보조 화승으로 참여한 후, 1646년부터 1654년까지 수화승으로 호남 사찰의 불상을 조성했다.

해심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행사(1606~1648, 이하 활동 시기)→무염(1633~1656)→정현(正玄, 1654)·해심(1630~1654)·성수(1633~1654)→지견(智堅, 1654~1659)·민기(敏機, 1648~1654)·경성(1648~1653)으로 이어진다. 무염 스님의 제자인 해심 스님은 정현 스님이나 성수 스님과 활동 시기와 집단 내 위상 등을 고려하면 사형사제(師兄師弟)임을 알 수 있다.

고창 문수사 · 광주 원각사 불상 등
1646~1654년 수화승으로 참여
행사 · 무염 스님 계보 이어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협시보살 1구는 목포 해봉사로 이운) 중 본존은 높이 167㎝의 중형 불상으로, 몸체와 밑판 및 대좌가 소나무로 제작돼 조선 후기 불상(여래와 보살상)이 대부분 은행나무로 제작된 것과 차이가 난다.

석가여래의 오른손은 손가락을 펴서 아래를 향한 촉지인(觸地印)을 하고, 왼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전형적인 조선후기 불상의 통인(通印)을 취하고 있다. 불상은 머리와 상반신을 앞으로 내밀어 자세가 구부정하고, 방형의 얼굴에 가늘게 뜬 눈, 원통형의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 모양을 하고 있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도식적으로 반원형을 그려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보다 인위적인 느낌이 든다. 착의법은 오른쪽 어깨에 수직으로 한 가닥의 옷자락이 가슴까지 완만하게 펼쳐져 있고, 나머지 대의자락은 오른쪽 어깨에 비스듬히 걸친 후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수직으로 내려와 배에서 반대쪽 대의자락과 자연스럽게 겹쳐져 있다. 중앙의 넓은 주름이 하반신에 완만하게 펼쳐진 것이 특징이고, 왼쪽 무릎 위에는 짧고 뾰족한 소매자락이 늘어져 있다.

이와 달리 1654년 제작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목조지장보살좌상,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팽글팽글한 얼굴에 턱 밑 음각으로 턱선을 강조하고, 귀의 표현에서도 크고 볼륨감이 있어 전반적으로 인상이 후덕하고 인자한 느낌이다.

특히 두툼한 눈두덩이, 삼각뿔의 코, 짧은 인중과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가지고 있어 광주 원각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46년)이나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48년)과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착의법 등이 차이가 난다.

해심 스님이 만든 불상은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착의법 등이 시기마다 차이가 있어 다양한 형태의 불상을 제작한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조각승으로 볼 수 있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현대불교신문 광고시
'무료' 영상광고 제공

QR코드 찍으시면
영상으로 사찰을 볼 수 있어요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을 검색하세요

2025년 7월 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38호 | 15 | 전면광고

너희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릴 줄 알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항상 안락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3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15억

- 위치 : 경남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법당 : 30평 외
- 매가 : 30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포교원 하실분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매매가격 : 5억5천
- 대지 : 107평(354㎡) / 건평 : 150.2평
- 지하 : 24.4평 / 1층 : 67.4평 / 2층 : 58.3평 / 옥상
- 1층과 지하 전세줌 / 1층 화장실1
  2층 법당1 방2 주방 거실 화장실2

010-3042-08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 땅 대지 86평 대웅전 목재 20평 삼존불
  산신각 2평 요사채 20평 마당
  약사여래불 방3 화장실 3
- 가액 : 1억 6천만원

010-9137-3838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제주 (토지)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 일주도로 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 가액 : 2억2천
-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사 찰 안 내

기도하며 한가하게 살기좋은 수행처

- 대지 85평 중 인법당 16평
- 조립식 요사채 12평
- 가격 : 3800만원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온천길 114-3

010-8987-4570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광대사
- 대지 1000평, 법당 15평 요사채 25평
- 명산 도량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7395-15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부지 2013㎡
- 법당 약40평, 요사채 약60평, 창고 약20평
- 산세 및 풍광 좋음
- 주차장 넓음
- 매매 : 6억 5천만원

010-3466-9991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전국 산중 사찰 중 개곡 있고, 숲이 많고, 터가 넓고, 도로좋은 곳
- 산중사찰 중 토지 넓은 사찰
- 수목장, 납골당 가능한 곳(경북)
- 도심 포교당 1억에서 3억
- 도심 사찰 중 15억 이내
- 사찰함께 운영할분(템플스테이 등)
- 전통사찰 중 문화재보유 사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충남 · 북
- 1억~2억 금액 암자(토굴)
- 2~3년 사찰임대 놓으실분 구함 2~3년 후 임대한 스님 구입확실

053-745-9999, 010-2512-7777

사 찰 안 내

'인연보시' 같이 동행할 인연 찾습니다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 267-28
- 사찰 규모 3600평, 목조/극락전 30평, 목조/산신각 요사채 80평, 7m 미륵입불, 미분양 부도탑 20기, 연못용왕당 찜질방 등
- 가액 : 10억원(상담후 50% 인수가능)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사찰
- 평수 : 18513㎡(5600평)
- 매매 : 17억

010-4646-2580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소재 대구 1시간 거리
- 법당, 주방, 방 2, 화장실 2
- 시설비 : 1000만원, 보증금 500/40

010-7942-901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30평
- 법당, 소불당 삼성각 용왕당
- 사시사철 자연수, 상수도 전망 아주좋음
- 매매 또는 전월세 가능

010-5033-1422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1000, 월세 15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50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동고령ic부근
- 230평 법당18평
-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과 용왕불 3필지
- 가액 : 4억7천
- 절충가능

010-3540-8431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신도시 교산지구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매매가 40억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대지 임야 등 약 1200평
- 대웅전 요사채 2동 약 86평
- 가액 : 13억 5000만원(절충가능)

010-5383-6827
010-3339-0086

사 찰 안 내

- 위치 : 장호원 감곡kt역 10분거리
- 대지 1100평 대웅전
- 60평 종각, 요사채3동, 휴게실 다도, 산신각
- 신비스런고 유명한 거북바위소원돌, 찜질방, 연못 12m해수관음보살, 대형용, 요양원 토목공사 완공

*상담 가능(월수금은 기도중 입니다)

010-5883-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가야산 아래 백운동 60평
- 1가구 2주택 해당 안되는 공기가 매우청정한 토굴
- 거실, 방2, 화1 군불넣는 잘지어진 황토방1
- 가액 : 6900만원

010-9468-01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산334
- 종교부지(대지) : 약 462평(대웅전, 산신각 등 다수) 법당평수 : 약 133평(1층, 2층, 3층) / 불상 다수 외 요사채 : 약 82평(1층, 2층)
- 기타대지 : 3,238평(도로, 답, 전, 임야, 주차장 등)
- 장점 : 1. 도로는 대형버스 이용 가능하며, 사찰까지 포장됨(주차장 넓음)
  2. 주변 경치가 좋고, 하천(계곡)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음(사진 참조)
- 가격 : 협상(2025.2 종교시설 제외 감정평가액 12억원)



010-3862-0398(스님) / 010-4196-6070(관리자)



사찰(급)안내

- 밀양 전망이 아름다운 암자
- 246평 (법당, 약사여래, 산신각)
- 요사채 25평(방3개, 화장실2개, 거실, 공양간)
- 태양광 시설 등 비품 일체
- 스님 부재로 급매
- 가액 : 1억 2천만원

010-7572-8526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2층 (법당 포함 35평)
- 도시가스 사용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4만원
- 시설비 : 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416-10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길곡면
- 490평, 건평 90평, 과수 20수 2층 건물, 2층 법당
- 대문 앞 버스정류장
- 굿당 가능
- 가액 : 4억 9천만원(절충가능)

010-4311-349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좌수영로 토곡사거리 도로 옆
- 31평 규모
- 법당, 주방, 친견실, 화장실, 방1개
- 시설비 : 700만원 (보증금 1500/50)

직통 010-5014-7570

포교당 안내

- 위치 : 철원군 동성읍
- 도로변 40평 1층 독채
- 법당 방2개
- 보증금 500/월세 20
- 상단삼존불 신중단 영단 비품비 무

010-9267-255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요사채 25평, 연 예산 1억원 주차 시설 20대
- 전세 5000~2억원 (월세 가능)

010-4561-6368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국내외 자비봉사단. 육법공양단. 불교 합창단

생활불교 실천에 잠시의 여유를 갖고 그늘진 곳 중생들에게 힘이되어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앞장 설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십니다.

02-733-5665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7월 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38호 | 16 | 전면광고

해가 뜰 때에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전(福田)도 이와 같아서
모든 어둠을 소멸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화엄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제주에서 수행하실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법력무관 -종단무관

문자 환영 010-4613-320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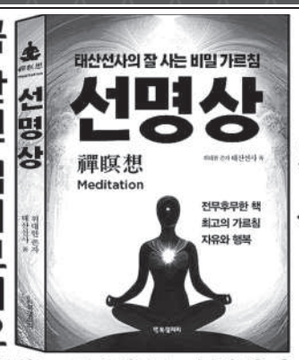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010-2168-2800

(사찰행사)범음범패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생전예수재

연암당 덕평스님
010-6219-4757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스님구함
행자, 처사님,
공양주 보살구함
(태고종)부산 만덕동
만덕사

010-3840-4355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강주 스님 도강 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온가족 건강 된장!

된 장 2.5kg : 29000원
고추장 1kg : 19000원
고추장 2.5kg : 39000원

농협 302-0090-3832-71
예금주 : 조계성 (택배 무료)

010-6613-7557

천하제일 적중률!

손으로 짚어 안되는 것이 없는
구단구궁법교실
상 표 등 록 : 40-0863341
서비스표등록 : 41-0213393
저 작 권 등 록 : C-2011-003967
특허 2일 완성 학생모집

법화 종헌 정흥교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 불교연합회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⑬ 정각원 중단(신중단) 1

법당에 스며든 불교 외적 요소

앞선 산책에서 우리는 동국대학교 정각원의 상단(불단), 중단(신중단), 하단(영가단)의 순서를 거꾸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뜬금없지만, 그룹 'W.H.I.T.E'의 '네모의 꿈'이란 노래를 아는지 묻고 싶다. 둥근 지구에서 둥글게 살라는 충고를 듣고 살지만 네모로만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그건 꿈이라고 말하는 노래다. 나름 세상을 거꾸로 보자는 내용인데 법당 예절과는 반대로 산책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노래다.

정각원의 신중단에는 네모난 모양의 탱화가 봉안돼 있다. 그것은 네 방향을 수호하는 사천왕을 중심으로 4신수, 8괘, 12지신, 12궁 별자리, 여러 불보살, 그리고 한반도를 후광으로 두른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묘사한 불화, '통일찰해도(統一察解圖)'이다. 12지신이 불교 문화에 깊이 스며들었다지만, 청룡·백호·주작 같은 상징들과 함께 건곤감리의 괘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12궁은 누구를 붙잡고,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요소들을 신중단에 그려 넣었을까? 전통적으로 모셔졌던 39위, 104위의 불교 신중님들은 다 어디로 가신 걸까? 이 같은 의문이 절로 든다. 거꾸로 보기로 한 김에, 신중단도 삐딱하게 바라보기로 하자.

신중단, 신중신앙은 우리 불교 신앙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찰 운영에서 초하루 기도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신중기도의 영험함이 사찰 살림살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반대로 신중은 삼보(三寶)의 보호자이기에 신앙의 대상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사실 39위든, 104위든 오랜 세월 불교 안에 잘 녹아들었을 뿐이지, 외도의 신격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정각원 신중단의 여러 존격(尊格)들과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교 외적인 요소들을 불교가 받아들이는 원리는 무엇일까? 첫째로 완전한 거부의 원리다. 이는 불교의 종취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배격하는 태도다. 필자는 이에 심정적으로는 동조하나 이천 년이 넘는 불교 역사 속에서 주류의 태도는 아니었던 듯하다. 둘째로 첫째와 반대되는 다원주의적 태도다. 사실상 다원주의적 태도가 대부분 지역불교에서 관찰된다. 그런데 다른 외도들도 전파된 지역의 문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은 보편적으로 관찰된다. 제사를 지내는 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49재와 비슷한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판테온(만신전) 안에 다른 종교의 신격을 들이는 세계 종교가 불교 외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교와 같이 괴력난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정각원 신중단에 봉안된 통일찰해도.

불교신앙 속 독특한 위치 차지
외부신앙의 존격 수용 고민 필요
사상적 배경 문헌서 찾아 봐야

복잡한 문제다. 힌두교의 시바, 비슈누는 마혜수라천, 대자재천과 같은 모습으로 신중단에 잘만 모시면서 불교의 포용적 성격을 부각하는 데 반해 왜 한국의 산신 신앙을 절에 모시는 것은 기복신앙이라면서 비불교적이라고 비판받을까? 위에 말했듯 필자는 이들을 거부, 배격하는 것에 심정적으로는 동조한다. 하지만 똑같은 구조, 즉 외도의 신격을 불교 안에 위치시킨다는 것은 똑같은데, 전자에 비해 후자가 혹독한 비판을 받는 것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동일 구조는 동일 논리이다. 해석학에서는 동일한 구조라도 상황마다 다른 맥락이 있겠다지만 이는 기만이다. 자신의 실수에 맥락을 보아달라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맥락에 따라 선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다.

지금에서도 필자는 인도와 변지(중국, 한국 등)의 차이로 이 문제가 보인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과 신앙은 진실이고, 중국, 한국에서 만들어진 경전과 신앙은 거짓이라는 주장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렇기에 만약 산신각이 비불교적이라고 철폐해야 한다면 마땅히 신중단도 치워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도의 신격을 불교에 안치시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조심스레 말해보자면 이 신격이 깨달음, 즉 불교적 구원과 일치할 수 있다면 불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라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 불교 밖으로 추방해야 한다. 신격이 인도에서 유래했는지 그 외에서 유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중단을 향한 우리의 예경이 깨달음의 진주가 될 수 있다고 항변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단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 주는 '화엄경약찬게'와 같은 문헌에서 사색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화엄경약찬게'에는 그저 〈화엄경〉에 나타나는 여러 존격의 이름과 각 품의 명칭만 나열될 뿐이다. 인도의 원어를 거친 한자음에 맞춰 음역한 여러 이름을 부르는 행위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떤 논리를 추구할 수 있을까?

천태지의(天台智顗)는 산스크리트 화자(話者)가 아니면서도 불교 경전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교상판석이라는 경전들과 교리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제일인자로 그의 교상판석은 고래로 가장 타당한 것이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천태지의의 경전 이해는 경전 간의 관계와 같은 거시적 부분보다 경전의 문구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미시적 부분이 더 압권인데, 간단히 말하면 한자 한 글자마다 모두 깨달음으로 개현(開顯)하는 것이다. 즉, 여시아문(如是我聞)이라고 한다면 여(如)한 글자에 깨달음이 모두 나타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독창적 언어관이 잘 드러나는 것이 〈묘법연화경문구〉, 줄여서 〈법화문구〉이다. 이 책은 총 10권의 대작으로 그중 1/4이 제1 서품에 대한 한 글자, 한 글자의 해석이다. 〈법화경〉이 총 28품이니, 그중 1품의 한자만 열심히 연습해도 깨달음에 충분히 다다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법화경〉 서품에는 '화엄경약찬게'에 나타나는 여러 신들이 공통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천태지의는 범천(梵天)의 '범(梵)' 한 글자에 이욕(離欲), 즉 욕심을 벗어나는 교리와 관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외도의 브라흐만이 이욕의 수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 인도에서는 불가능한 이해이다. 굴절어인 산스크리트에서 '범'이란 글자는 인식되지 않는다. 반면 고립어인 한자에서만 '범'자는 그 글자 자체로 다른 의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네모 안의 한자인 '범'이 둥글게, 원만히 욕심을 여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또 말이 너무 길어져 신중단을 불교로 만드는 데 지면이 부족해졌다. 하지만 아직 더 신중단을 바라보며 '네모의 꿈'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도형학의 미학은 언급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동국대 박사〉

평안으로 복업 짓게 하고 중생의 안온한 삶 이끌어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㉖ 제3 영복업륜(營福業輪)의 주요 내용

'제3 영복업륜(營福業輪)'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이여, 여래의 복을 짓는 업륜이란 어떠한 것인가? 근기가 우둔해 선근을 심지 못하고, 지혜가 용렬해 게으르고 정신이 없으며, 온갖 필수품에 집착해 좋은 벗을 멀리 떠난 유정들을 평안하게 해 복업을 짓게 하는 것이다. 또 불·법·승의 일과 친교사 및 궤범사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래의 복을 짓는 업륜이라 하는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나는 제2불륜을 성취하고, 위 없는 삼세업지(三世業智: 여래십지의 하나로 삼세(三世) 법에 통달한 영원한 지혜)로써 일체유정이 그 업으로 받는 인과를 여실히 안다. 그 응함에 따라 세 가지 업륜을 세워 교화해야 할 일체중생을 성숙시켜 안온하게 살게 한다. 놀람과 두려움도 없게 하였고, 천마외도들의 삿된 주장을 꺾었으며, 큰 법륜을 굴리고 범행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중생들의 인과를 여실하게 아느니라."

제3불륜에서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제자로서 복과 지혜·보시와 선정 등을 떠나 마음이 어지러워도 내게 귀의하면, 나는 그 근기와 좋고 나쁜 습성과 뛰어난 이해력 등을 잘 알아 그 응함에 따라 죄를 다스리는 율장의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만일 중생으로서 성품이 비틀려 어떤 계율도 받들 수 없으면, 여러 가지로 다스린다. 즉, 억념(憶念) 법을 제정하여 벌을 주고 … 몹시 꾸짖거나 더불어 말하지 않고 이익을 함께 하지 않으며, 혹은 풀로 덮어서 감추듯 하고 물리쳐 없애느니라. … 그리하여 그에 합당한 벌을 주어 다스리고, 삿된 가르침과 부처의 가르침 차이를 관찰하며 악도를 행하는 자에게 치벌(治罰)의 법을 제정해 주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나는 제3의 불륜을 성취하고 모든 유정과 개인의 근기, 그의 원(願)과 나쁜 습성, 뛰어난 이해력과 모든 업의 과보를 안다. 그 응함에 따라 이롭고 안락하게 해 편안히 살면서 놀람과 두려움도 없게 하였다. 또 '나는 대선(大仙)의 높은 자리에서 불륜을 굴려, 모든 천마와 외도의 삿된 주장을 꺾는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대중 가운데에서 바르게 사자후 하느니라."

제4와 제5불륜에서도 사중(四衆)을 위한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제4불륜에서는 "지장보살이여, 여래도 교묘한 방편과 뛰어난 지혜를 성취해 유정들이 삿된 귀의, 소견, 뜻과 법에 즐겨 집착하고 삿된 업을 행한 인연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대중을 불러 과거 부처님들에 의해 이어온 삼보의 종성(種姓)과 인과와 육바라밀과 마음을 통일하기 위해 의지하는 인(因)과 삼율의(三律儀: 별해탈, 정려생, 도생율의) 등 모든 인과법으로 대중을 깨우치고 진리를 시현해 대중들로 하여금 바른 견해를 세우게 한다."

"그리하여 그들을 십선(十善)에 편안히 있게 하고, 함께 법을 따르고 행한다. 또 인연 없는 중생을 불도로 이끌어 인과에 상응한 수행을 하게 한다. 모든 유정을 위해 일체의 선행(善行)을 닦아 사념주(四念住)와 삼매, 해탈지견 등에서 즐거워하게 한다. 또 삼보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사정근(四正勤), 사신족(四神足),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각지(七覺支), 팔정도(八正道) 등 도품(37조도품) 가운데에서 함께 기뻐하느니라. 나는 이렇게 제4불륜을 성취하고 … 사자후 하느니라."

제5불륜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장보살이여, 여래는 모든 지혜를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악마와 95종의 삿된 외도와 무량한 악마외도 등 미혹된 유정이 자기 재색에 빠져 싫증을 내지 않고 남의 재색을 사랑해 탐내고, 내 제자들을 깊이 미워하고 질투하여, 나를 해치기 위해 거짓으로 음식을 차려 독약을 섞음을 … 사람이 아니라고 하거나 허깨비라 하는, 온갖 악으로써 비방하고 불법승에 대해서도 욕하고 헐뜯음을, 나와 성문 제자들에 대해서도 질투 비방함을 안다. 여래는 이를 알기에 육근을 잘 단속하고, 네 가지 무량한 마음에 의지하며, 네 가지 변재를 갖추어 여러 성문을 위해 법의 중요한 뜻을 설명하여 청정한 삼해탈문에 편히 머무르게 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나는 제5불륜을 성취해 세간과 세간을 벗어난 알음알이와 온갖 성품에 대한 지혜로 모든 유정과 그 개인의 한량없는 갖가지 성품을 안다. 그 응함을 따라 이롭고 안온하게 살며 어떤 놀라움이나 두려움도 없게 하였고, '나는 대선의 높은 자리에서 법륜을 굴려 모든 천마와 외도들의 삿된 주장을 꺾는다'고 자칭하면서 대중 가운데서 바르게 사자후를 하느니라."

부처님은 이와 같이 불법승 삼보에 대한 온갖 모함과 비방을 겪어나가면서도,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자비의 마음을 주야로 헌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 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particular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⑬ 소서_영월길을 걷다(下)

▶한줄 요약
'작은 더위', '작은 여름'이라는 뜻의 소서는 하지와 대서 사이의 11번째 절기다. 옛 사람들은 물맞이를 하고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 계절을 맞이했다.



불·물 기운 요동치는 여름의 문턱

하지 전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망칠까, 마른하늘 걱정만 했더니 예년보다 빨리 달려온 장맛비 소식에 또 한 번 세상이 어수선하다.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막연한 침묵뿐. 다만 빗줄기를 헤집고 다가오는 후끈한 열기만이 이 계절을 설명하려 애를 쓴다. 두 얼굴의 여름이 숨 가쁜 몸부림을 시작하는 지금, 소서(小暑)의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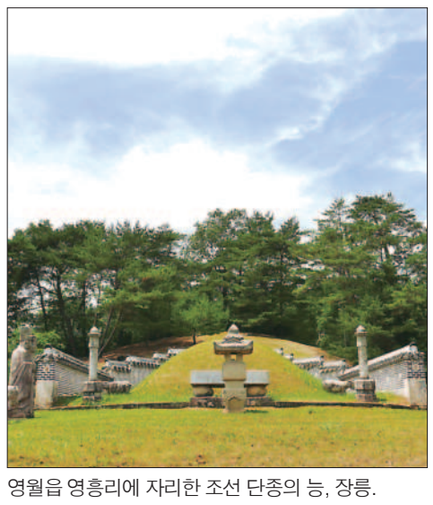
통일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보덕사 경내 전경. 1984년 강원도 문화재자료(현 문화유산자료)인 극락보전(왼쪽 첫 번째)과 단종어각(왼쪽 두 번째)이 자리한다.



보덕사 사천왕문.



단종어각에 봉안된 단종 어진.



영월읍 영흥리에 자리한 조선 단종의 능, 장릉.

작은 전쟁

6월 중순이 지나자마자, 전국 메밀 농가의 피해를 우려하는 뉴스가 연달아 들려온다. 때이른 장마로 메밀의 수발아 현상이 일어나 수확량과 상품성이 떨어질 상황에 놓인 것이다.

수발아는 수확 전 메밀의 종실(씨앗)에 싹이 트는 현상으로, 그렇게 된 메밀은 식용 또는 종자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메밀 종실이 물에 젖은 후 단 하루라도 기온이 25℃ 이상이 되면 수발아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러니 메밀 수확 시기인 소서 즈음에 장마철이 겹치면, 농가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득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하지를 넘긴 여름의 비는 결코 혼자인 적이 없다. 반갑지 않은 더위가 빗줄기 너머, 기어코 함께 오고야 마는 것이다.

유월은 계하(季夏)이니 소서 대서 절기라네
큰비도 때로 오고 더위도 극심하다.
초목이 무성하니 파리 모기 모여들고
평지에 물이 괴니 악머구리(참개구리) 소리 난다. 농가월령가 '유월령' 중에서

옛글에 남겨진 이 시절의 풍경은 자연의 변덕스러움을, 또 그 안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뭇 생명의 모습을 담담히 전한다. 애타는 농부의 마음이야 어찌하겠는가마는 그저 이런저런 모습을 지닌 계절일 뿐이라고, 그렇게 함께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듯이.

'작은 더위', '작은 여름'이라는 뜻을 가진 소서는 한 해의 11번째 절기. 태양 황경은 이제 막 100도를 넘어 하지와 대서 사이에 자리한다.

이즈음은 장마 전선이 한반도 전역에 장기간 머물러 습도가 높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때. 빗줄기가 잠시 거두어지면 수증기 머금은 대기의 열기가 이른바 여름의 '매운맛'이 되어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이다. 그 뜨거운 가운데 본격적인 김매기는 시작되고, 빗속에서 살아남아 다시 뙤약볕에 익어가는 과일과 작물을 위한 채비로 쉴 틈이 없다.

7~8월의 가혹한 더위와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기 전, 먼저 다가온 여름은 이미 작은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정화와 재생의 시간

여름은 불과 물의 기운이 함께 요동치는 계절. 이 절기에 빼놓을 수 없는 속절(俗節)이 하나 있다.

물의 명절이라 불리기도 하는 '유두절'은 음력 6월 보름, 올해는 7월 9일에 든 오랜 세시풍속이다. 신라 시대부터 이어진 이 전통은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의 준말로, 물 맑은 폭포에 가서 머리를 감고 몸을 닦아 액을 씻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신라의 옛 땅인 경상도 지방에서는 지금도 유두절을 '물맞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래 절기란 중국에서 유입돼 여타 풍속도 그와 동반하는 것이 많지만, 유두절은 우리 땅에서 자생한 고유의 문화다. 조선의 실학자 정동유는 "유두만이 고유풍속이며 그 외의 절일은 중국에서 온 것"이라 전했을 정도.

이날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동류수(東流水)를 찾는 것은 해가 뜨는 동쪽이 맑고 양기가 가장 왕성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과거에는 물맞이를 하며 사찰과 논을 찾아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고, 또 연회를 즐기며 이 불의 계절을 맞이했다.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물맞이 풍습이 아주 오랜 시간 불교와 결합해 그만의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인들은 흐르는 물에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유두절에 불교적 의미를 더해 '보살계도량(菩薩戒道場)'이라는 새로운 문을 열었다.

국가가 주도하는 보살계에 가장 먼저 나선 이는 당연히 임금이었으며, 조선에 이르기까지 왕이 보살계를 받고 불제자임을 공고히 하는 의식을 치른 것이다. 만백성이 그와 함께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물은 생명. 옛사람들은 때로 정갈한 관욕 의식으로, 또 흐르는 물 아래서 번뇌를 씻고 청정한 새 생명이 되어 다시 살아났다.

그 여름의 소년 왕

1457년 6월 28일. 세종의 적장손이자 문종과 현덕 왕후의 장남으로 태어난 16살의 소년왕, 단종은 타는 듯한 더위를 뚫고 이제 막 강원도 영월에 도착한 참이었다. 한양을 떠난 지 열흘 만에 당도한 낯선 땅. 청계천 영도교에서 서럽게 울며 헤어진 정순 왕후는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조선 왕조 역대 국왕 중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갖추었다는 단종. 하지만 조부모도 부모도 모두 그만을 남겨둔 채 눈을 감은 상황에서, 권력을 탐하는 악연의 무리에게 단종의 정통성이란 한낱 먼지와 같은 것이었다.

즉위한 지 1년 만에 숙부 수양대군(세조)에게 반강제로 왕위를 빼앗기고, 이어 단종의 복귀를 두려워한 수양 대군은 자신의 조카를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보낸다.

남한강 상류인 서강이 둘러싼 자그마한 내륙의 섬 청령포. 이곳은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륙봉(六六峰)의 기암절벽으로 막혀 도망이 불가능한 천혜의 감옥이었다.

단종이 영월에 도착한 때가 바로 소서 즈음. 내내 더위와 외로움에 시달리던 그는 두 달 만에 거센 장마로 인해 영월부 관아를 향해 몸을 옮겨야 했다.

단종이 유배를 떠난 뒤, 그해 여름은 이상기온이라 할 만큼 유독 날씨가 궂었다고 했던가. 단종은 섬을 물에 잠기게 할 만큼 강한 장마가 오기 전, 간신히 육지 땅을 밟았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삼도천과 다름없었음을 어린 소년 왕은 알았을까. 단종은 그해 11월 숙부에 의해 끝내 목숨을 잃고 만다.

영월 시내와 가까운 영흥리에는 조선 6대 국왕 단종이 잠든 장릉(莊陵)이 자리한다. 선왕릉 중 태조의 건원릉, 중종이 잠든 정릉과 함께 왕후 없이 임금 홀로 묻힌 3기의 능 중 하나.

단종이 세상을 떠나자 거두는 이 없이 버려진 시신을 영월호장 엄흥도가 몰래 거두고 자신의 가문 선산에 가매장한 땅. 그렇게 이곳은 한 소년 왕의 영원한 쉴 자리가 되어 버렸다.

그 곁의 고적한 마을 길을 따라 걸으면 나타나는 장릉의 수호사찰, 태백산 보덕사. 통일신라 문무왕 때 의상 대사가 창건한 이곳은 영조 때 단종 복권과 함께 장릉 수호사찰로 자리매김한다.

아늑한 자태의 사천왕문을 건너면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도량, 그 깊숙한 곳에 신비롭게 자리한 사성전과 칠성각,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해우소까지. 보덕사는 장릉 수호사찰의 역사적 의미 외에도 영월 방문 시 꼭 들러 봐야 할 유산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사찰의 중심 전각인 극락보전의 오른편, 바로 그곳에 단종의 어진을 모신 '단종어각(御閣)'이 있다. 조심히 전각 안에 들어서자 포르르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마는 작은 새. 지금도 홀로 이곳에 머무는 소년 왕의 곁을 지켜 주기라도 한 것일까.

하지만 어진 속 어린 왕의 눈은 더 이상 슬프지 않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겠노라 말하는 듯 당당한 눈빛이 이 여름의 어느 날을 응시한다.

다가올 혹서의 여름은 매섭겠지만, 다시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우린 모두 다시 태어날 것이다. 지난 아픔과 번뇌는 모두 흘려보내고 새롭게, 외롭지 않게. 〈작가〉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내 마음 하나에 의해 일체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모든 것은 누구의 짓이냐? 잘못하든 잘하든 자기의 짓이라 이거예요. 남이 잘못한다고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내 탓이라고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그렇더라도 만날 말로 잘못했다고 긁적거리면 집안이 화목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진실로 이끌어지질 않아요. 여자가 그렇더라도 그렇고, 또 자식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당신밖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치라고 믿었을 때, 바로 그 천체 무전통신기와 에너지는 거기로 속사포같이 그냥 한 찰나에 가서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전기 가설이 되었기 때문에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불이 저쪽에도 들어오고 이쪽에도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나가는 것이 심성 과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공했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놈이 뭣고?' 하고 화두를 잡고 한다면, 내가 바로 화두인데도 불구하고 화두를 또 거기다가 붙여서 잡고 있다면 몇백 년이 가도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공부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노인네들 공부하실 때는 뭐, 조선어니 뭐니 해서 과목이 몇 가지밖에 없었죠? 지금 보세요, 어떤가? 예전에는 무명옷을 입고 명주옷을 입었는데, 지금은 무명옷 입은 분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지는 대로 우리는 마음의 촛불을 켜고 앞장서서 밝게 중용을 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불법이지 어디 따로 불법이 있겠습니까?

법당에 가면 법당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처의 형상과 나의 형상이 둘이 아니요, 부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닌 고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둘이 아닙니다. 왜 부처님께서 뼈 무더기를 보고 그렇게 삼배를 올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사생자부이신 당신께서 어째서 거기다가 예배를 합니까?" 하니, 그것도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겠지요? "이것이 바로 내 할머니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느니라. 억겁을 거쳐 오면서 그렇게 살아왔느니라. 그런데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희는 아직도 그걸 터득을 못 했다면 어찌하겠는고." 하고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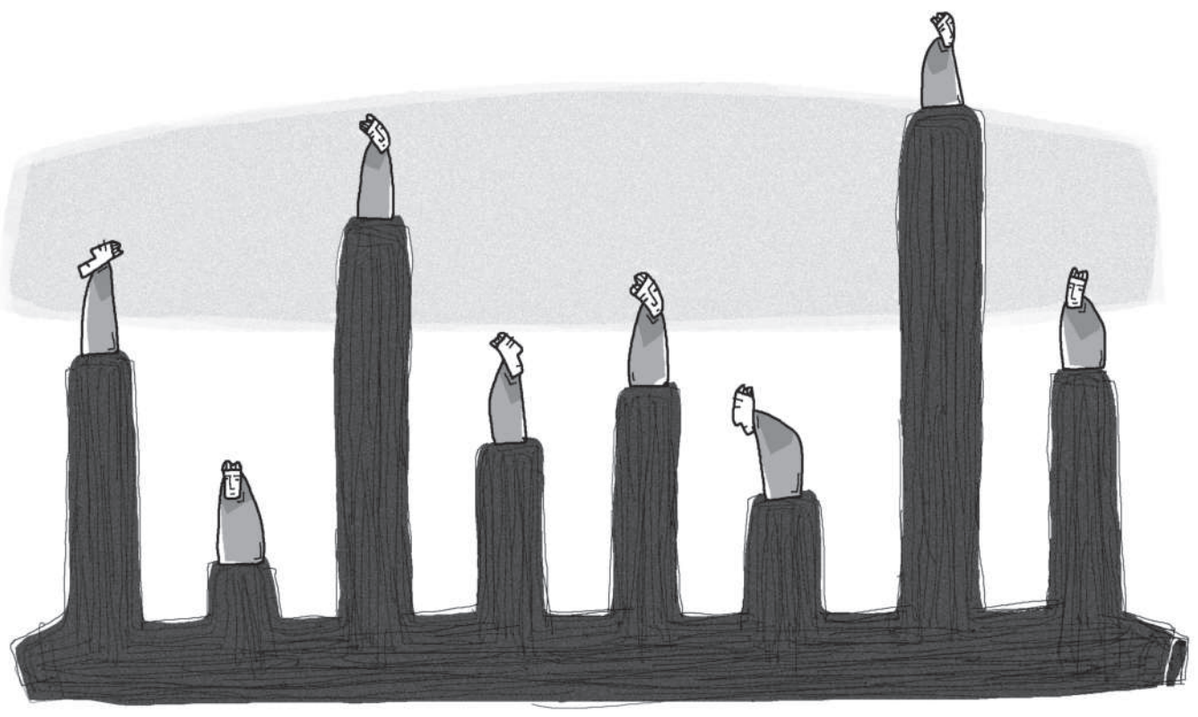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듯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거쳐 왔다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아! 이것 참 어렵겠는데.' 하고선 '이것이 좋겠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다리가 길다 다리가 짧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다음에 나올 때는 생각한 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한 생각이 진화를 시키고 그 마음에서 진화력이 조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이 됐었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남을 항상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뿐더러 자기를 자기가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나는 모르니까, 나는 중생이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파리가 구더기를 모르고 구더기가 파리를 모르듯이 말입니다. 파리가 전자에 구더기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배 속에 구더기가 들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전자에 구더기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자기 배 속에 구더기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말을 한 번 더, 재차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가환과 병고와 가난에 찌들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먹는 것도 가리고 잠자리도 가리고 온통 여러 가지로 가리면서 석 달 열흘을 기도를 하고 인등을 켜고 이렇게들 합니다. 몸뚱이를 아무리 씻어봤던들 마음보다 더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남편을 굶주리게 하고 가족도 굶주리게 하고 애들도 굶주리게 해서 나쁜 길로 가지나 않을까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 마음 자체를 그렇게 일심으로써 주인공 안테나에 맡겨 놓고, 병고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 하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물러서지 않았을 때 그 병고를 그냥 그대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도 그렇고 모든 게, 일체가 다 그러하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무명에 묻혀 있는, 땅속에 있는 보배와 같다고 해서 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땅속에서 금을 찾아서 바깥으로 캐내서 광을 내야만이 빛이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 무명 속에 묻혀 있는 그 보배를 바로 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바깥으로 광명이 나가니 그게 관세음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체가 스스로 보살행이 되게 되니까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250계나 348계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나 교양적으로나 모든 이치에 맞게 스스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참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부처님 이전에 단군께서 가르치신 천부경 그 81자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음미해 보신다면 불법이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이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즐겁고 환희로우며, 내 마음 하나에 의해 일체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지구 배에 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배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도 우리가 지금 부산을 가는지 제주도를 가는지 여길 왔는지 저길 갔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끌고 가는 선장이 한마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다. 너밖에는 나를 튼튼하게 할 수 없어. 네가 건강하고 네가 회전을 잘해 줘야 내가 건강하지 않겠느냐? 너를 끌고 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참, 그냥 뭐, 회전을 잘해 주지요. '아하! 지금 여기 가고 있구나.' 하고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법이죠.

이거는 과학으로도 해명 못 하고 의학으로도 해명 못 하고, 이건 어떤 것으로도 못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그 점을 지난번에도 얘길 했지만, 정자 난자에 의해서 영원한 자기 자체가 태어난다 이겁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왜 자식들이 부모들과 성격도 닮고 모습도 닮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정자 난자의 그 뜻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 19면에서 계속

을 받아서 몸을 빌려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억 마리가 다 없어지면서 하나를 뽑아 놓는 겁니다. 뽑아 놔 가지고서는 물질은 다 없어지고 심령은 그 하나 뽑아 놓은 데 다 접합니다. 인연 따라서 만난 몸이기 때문에 다 그 몸뚱이로 합쳐져서 세포 세포에 자기 소임을 맡아서 바로 한 집으로 듭니다. 그래서는 정자 난자의 그 뜻을 받아서 몸뚱이를 키우는 것이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 혜택으로 인해서 몸뚱이를 다 받게 된 것이라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애들은 "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나를 낳아 놓고 내게 해 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한대요, 글쎄. 그런데 그렇게 몸과 마음과 피와 살을, 그리고 의식까지도 차원까지도 받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몸뚱이 속에서도 끼리끼리 인연 따라서 나한테, 즉 한 집으로 들어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를 운행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몸뚱이, 수많은 몸뚱이를 운행해 주는 것도 부모의 그 몸뚱이를 빌려서, "그 몸뚱이를 빌려서"가 아니라 그 몸뚱이가 그 몸뚱이입니다. 그러니까 2세의 아버지고 2세의 어머니죠. 그러니 그게 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단풍이 들어 낙엽이 졌다고 그래서 '아!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자기를 낳아 놓고 자기가 옷을 벗고선 그 밑으로 또 나오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울 것도 없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져 죽을 것도 없고 찬 것도 없고 뜨거운 것도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 도리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가정이나 몸뚱이나 참 편안할 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마힐 거사가 병을 앓고 있으니까 모두 병문안을 갔거든요. 병문안을 가서 "편찮으셔서 어떡하느냐, 어서 나으셔야지."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노라." 이러더랍니다. 우리가 당장에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각자 자기 몸뚱이 하나를 보세요. 유마힐 거사가 말한 게 재깍 나오죠. 아니 글쎄, 이 배 속의 내 중생들, 그것들이 회전을 깨끗하게 다 잘해 주고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가 낫죠.

그러니 참말로 불법이라는 이 자체가, 가면 갈수록 이 세상 이치가 어쩌면 그렇게 묘하고 광대하고, 알면 알수록 그렇게 떳떳하고 바다로 물 흘러 내려가듯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몸을 가지고 나와서 만약에 이 도리를 모르고 간다면 또다시 윤회에 끄달리면서 사생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짐승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벌레가 됐다가 이렇게, 좌천했다가 승진했다가 이렇게 하고 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천당도 이 자리에 있고 지옥도 이 자리에 있죠. 바로 우리 마음이 옹졸하고 불이치밀면 그것은 화탕지옥이요, 그것을 다 놓고서 평안하게 '내가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불이 나게 하면 되나? 모든 게 내 탓이니까 바로 주인공 당신밖에는 해결을 못 합니다.' 하고선 탁 놓았을 때, 방하착했을 때 바로 보살의 마음이요, 바로 자비스러운 부처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집에 들어가면 참 아주 복잡하지 않고 좋아.' 하고 돈도 올 거고 가난도 없어질 겁니다. 화목해야 가난이 없어지는 거지 화목하지 않고 만날 싸움이나 하고 그러는데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것들도 다 생명이 있는데 말입니다. 눈이 있어요. 돈도 눈이 있고 생명이 있고, 좋은 데 알고 나쁜 데 알아요. 돈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감사한 줄 알아야 해요. 이 세상에 지수화풍이 없으면 여러분은 한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뚱이도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주 개공을 맛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물과 불과 흙과 바람이 아니라면 없었을 테니까요. 이 찻잔도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고교하게. 찻잔이라고 이름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출현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앞으로 점점 가면 점점 더할 거예요.

기독교에 십자가 붙인 거 많이 보셨죠? 우리라고 그렇게 못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법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저 이 도리를 열심히 배워서 법사의 자격을 따 가지고 법전만 들면 어디 가서 법륜 마크를 걸고라도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법입니다.

여기 부산의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십시오. 지금 서울에 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엊그저께 개원식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키워서 법사 자격증을 줘서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이렇게 신비하고 좋은 우리 불법을 포교를 한다면 그것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을 설립한 겁니다. 요번에 법전이 나오면 여기 부산에도 교육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젊은이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대구니 어디니 방방곡곡에 법륜 마크를 걸어 놓고 이 마음법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모든 샘터에 샘물이 나오게 해서 그대로 자기가 퍼 먹을 수 있게끔 이끌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보살행이며 그것이 법신이며 화신입니다. 그런 문제는 말로만 하거나 이론으로만 한다면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실천으로 옮기고 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나는 실험을 해 보고, 내 몸뚱이를 수천 번 던져 보고 수천 번 칼로 찔러 보고,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실험을 해 보지 않고 책으로만 봐서 남의 말을 듣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이야! 지금 내 이 모습을 가지고 아주 거짓 없는 진실한 말만 하고 살아도 얼마 안 있어서 이게 단풍 들어 떨어질 텐데 이 몸뚱이 가지고 얼마나 살겠다고 거짓을 해요?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부처님 법에 누가 되는, 한데 떨어지는 말이요, 한마디 거짓을 안 한다면 우주간 법계에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 내가 한 마디 거짓을 하면 그것을 감추려고 백 마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 이 배 속에 수십억 마리가 다 알게 되지요. 음파를 통해서 벌써 법계에서 허공에서 다 알게 되지요. 그러니 내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거짓말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거짓 없이, 우리 생활 속에서 참다운 인간의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사세요.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는 그 삶의 참보람을 느껴 보세요.

지난번에 미국 산호세에 가니까요, 거기가 이천 평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거기 밭에 있는 풀을 전부 긁어냈어요. 거기에다가 또 거름을 끼얹고 그냥 기계로 갈아 버렸어요. 갈고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감나무 한 백 주를 심었어요. 그래 가지고 발에 흙 안 묻히고 스위치만 틀면 감나무 하나하나에 물을 주게끔 파이프를 전부 놨어요. 이렇게 해 놓고 또, 울타리나무 있죠? 여기선 그런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이파리 하나 처지지 않는 덩어리 나무 있죠? 그것이 울타리나무라나요? 그거를 한 백 주 넘게 사서 뺑 둘러 가면서 전부 심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실과 나무도 조금 심고요.

그럭하고 있다가 뉴욕에서 말입니다, 길에 나가면 병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백납이니 백혈병이니 에이즈병이라나 뭐 그거, 또 요새 유행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뚱뚱해서 걸음을 못 걷는 병도 있어요. 허, 참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섯 여섯을 하나로 뭉쳐 놔도 아마 그렇게 뚱뚱하진 않을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휠체어! 내가 가만히 볼 땐 먹는 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봐요.

어느 식당에 한번 들어가니까요 글쎄,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뭐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큰 접시에다 고기를 한 접시 야채 한 접시 또 아이스크림이 한 접시 또 닭 한 접시, 네 접시를, 허허, 혼자서 가져가길래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아, 여러 사람이 오니까 뷔페식으로 저렇게 갖다 놓고 덜어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거기 구경하자고 들어가서 아이스크림하고 야채하고 먹는데요, 고 조그만 것도 배가 부른데 아이, 나중에 보니까 그걸 다 먹었어요, 글쎄. 하하하, 너무나 깜짝 놀란 거 있죠? 그러니 몸뚱이가 그렇게 안 되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요새 일본 사람들이 아주 한 등 올라선 게 뭐냐 하면 일본식으로 스시나 야채를 튀겨 놓는 거, 이런 걸로 아주 붐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또 애인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마 몸이 뚱뚱해지니까 요런 걸 먹어야 되겠다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러한 병도 그렇지만 모두 우리 자체가 바로 내 몸을 내가 알아서 코치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조금 나쁜 수를 놓는 게 좋다. 또 그럴 땐 정신에도 좋고 몸뚱이에 병이 안 생기죠. 여러분도 먹는 데에 좀 더 유념하시고, 또 좋은 거 나쁜 거 가려 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스스로 속에서 달라는 대로만 조금씩 주면 돼요. 이 중생들이 달라는 대로만 주시면 되거든요. 내가 일부러 좋다고 하고 먹을 필요가 없어요. 달라는 대로만 주세요. 그러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 한번 가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서 흙도 날라 보고 삽질도 해 보고 곡괭이질도 해 보고 그래 봤지만 말입니다,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래서 올 때는 호박이 그냥 지천으로 열렸습니다마는 미국에는 한국의 애호박이라는 게 없어요. 오이도 그런 오이가 없고요. 고추도 그런 고추가 없고요. 배나무도 그런 배나무가 없고, 그래서 배나무도 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갈 인연이 있어서 감 날 때에 간다면 감은 실컷 먹을 겁니다. 허허허….

> 모든 샘터에 샘물이 나오게 해서
> 그대로 자기가 퍼 먹을 수 있게끔 이끌어 줄 수 있다면
> 그것이 보살행이며 법신이며 화신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7월 3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건강식품 대특가! 단 100세트 한정 특별할인판매

기간 : 오늘부터 ~ 2025년 7월 30일까지

세계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모방불가능! 세계 최초 기술력!
관절·연골·칼슘을 한 번에 챙기세요!

① 에이펙셀 관절연골튼튼
✔ 세계최초 기술력! 관절+연골 집중 케어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증정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하루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관절 지키기!



② 한국칼슘왕 (나노칼슘)
✔ 세계최초 나노입자 칼슘으로 흡수력 UP!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2개월분)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나이 들수록 중요한 칼슘! 뼈부터 챙기세요!



③ 본추관절정 2+2 행사
✔ 관절과 연골에 딱 맞는 4개월 구성!
1세트(2통)+사은품 2통 → 총 4통 (4개월분)
정가 396,000원 → 특판가 15만원
→ 무릎, 어깨, 허리까지! 50% 할인 찬스!



■ 지금 전화주세요! 선착순 100분 한정판매!
■ 수량소진 시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 택배무료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는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에서 주문시 가능)
■ 상담 : 1688-9099 ■ 신한은행100-036-429749(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⑬ 어떻게 대응하나? (1)

끊임없이 파도치는 부정적인 생각

일상생활 중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 계속 떠오르는 불편한 기억과 느낌들. 일견 난데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분명 필연적인 조건과 조건의 만남(연기緣起)을 거쳐 떠오른 것이다. 단지 반야(통찰지)가 없어,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을 못 봤을 뿐이다.

"아니, 이 생각이 왜 지금 여기서 나는 거야?"

어느 날, 출근 운전으로 고속도로 자유로에 진입해 차의 속도를 올릴 때쯤이면, 항상 그 자리에서 과거의 특정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름을 발견했다. "아니, 이 생각이 왜 여기서 나는 거야?"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분명 그 시점에서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자유로 진입 구간에 들어설 때가 오면 운전대를 잡은 채 알아차림을 밝혔다. 그러니 "아!"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른 과정이 간파됐다. 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갑자기 속도를 올리니 → 몸에 힘이 들어갔다 → 팔과 어깨 등 상체 쪽으로 긴장이 들어간다 → 근육을 움츠리게 되며 (그 느낌에) 저항한다 → 이러한 느낌은 빛의 속도로 상온(想蘊: 기억의 창고)에서 가장 유사한 느낌을 찾아낸다 → 기억 속 그 느낌과 함께 저장된 과거의 상황을 끄집어낸다 → 내 의식으로 표면화된다 → 그 과거의 기억에 반응한다.]

이렇게 대상이 강렬해 아누빠사나(anupassanā, 수관隨觀: 대상을 따라가는 관찰)가 어느 정도 가능한 대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6근과 6경으로 세상을 만날 때 발생하는 '촉(觸)과 느낌(受)'이, 딱히 '의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주 많다. 그리고 그것은 미세한 연기적 차원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다가, (거친 외부 조건과 만나면) 의식적 표면으로 나타난다. 이때 우리는 난데없다고 느끼지만, 미세한 차원(의식화되지 않은 차원)에서 오온이 계속 돌아가고 있던 것이다.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힌 연상 작용의 고리를 찾아 전개된다. 그래서 딸기잼을 보고도(불선심소不善心所가 작용하면) 과거 피흘린 때가 연상될 수 있고, 밧줄을 보고도 뱀이라고 놀라며 누런 나뭇잎을 보고도 똥이라고 자지러지기도 한다. 이렇듯 오온의 전개는 무명과 갈애와 집착과 업식과 음식 에너지 등과 어우러져서, '있는 걸 없다고 하고 없는 걸 있다'고 하며 '필연적인 망상'으로 전개된다.(불선심소: 번뇌를 일으키는 해로운 마음 요소. 예: 알아차림이 없다면 어리석음, 양심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은 반드시 일어나는 4요소들이다.)



내 안의 치심, 탐심, 분심이 일어날 때 에너지 모습. 검붉고 진득한 에너지가 변화무쌍하게 파도친다. ©강소연

'느낌(受: Vedana 웨다나) 관찰'의 중요성

이러한 전개 과정 중 가장 큰 오류를 일으키고, 번뇌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 '수(느낌)'이다. 더 정확히는 '수에 대한 집착'이다. '수'는 '촉(6근과 6경의 만남)'을 그 원인으로 한다. 위의 '고속도로의 번뇌' 예로 다시 돌아가보자. 지금은 고속도로를 타느라, 차의 속도가 빨라지니 몸이 움츠린 것이었는데, 그 '움츠리는 느낌'만을 매개로 전혀 엉뚱한 기억을 상온에서 연결시켜 의식화한 것이다.

그러니 부정적 생각, 안 좋은 기억이 난데없이 떠오르면 먼저 내 몸에 어디 '불편한 느낌이 없나'를 관찰하자. 예를 들면, 누워 있는데 갑자기 자식이 섭섭하게 한 것이 떠오르면, 허리가 눌리지는 않았나 또는 어깨가 압박받지는 않았나를 먼저 체크하자. 불편한 느낌을 관찰하는 순간, '촉과 느낌'을 자기화하지 않고 그것이 일어나고 사리지는 생멸을 관찰하는 순간, 오온의 전개는 끊어진다.

번뇌에 대응하는 방법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집착을 통해 나와 동일시해 스스로를 괴롭힌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오온의 전개를 통해 만들어진 망상 속 인물을 진짜로 착각하고 분개하며 반응한다. 이때 일어난 에너지는 몸과 마음을 태운다.(그림 이미지 참조) 번뇌의 무한 반복과 그것의 치성함을 가라앉히려면, 무엇보다도 고요한 마음(선정)과 알아차림(삿띠)의 힘을 키워야 한다. 이것을 정정(正定: 바른 집중)과 정념(正念: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이 두 날개가 갖추어지면 불타오르던 망상은 더 이상 힘을 못 쓴다.

번뇌를 소멸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위에 언급했듯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먼저 내 몸의 불편한 느낌을 체크한다. 그 느낌이 상온으로 연결돼 쓸데없이 과다한 두려움으로 몸에 경계경보가 켜지는 것을 예방한다. 2.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면 호흡 관찰로 돌아온다. 3. 떠오른 생각을 그냥 지켜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면 즉각적으로 염오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때 무심하게 관찰을 유지해 그것의 생멸(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 그러면 더 이상 생각 속의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에게 헛발질하는 불상사는 없으리라.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⑬ 항생제, 꼭 먹어야 하나요?

임의 중단 말고 처방 따라야

"우리 아드님, 오늘은 항생제 처방이 나왔네요. 증상이 좀 더 심해졌나요?"

"네? 항생제가 나왔다고요?"

"네. 항생제가 처방됐네요. 불편하신 점이라도?"

"아니, 항생제는 안 좋은 것이잖아요. 내성 생기는 약이잖아요?"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항생제는 안 좋은 약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균 감염이 있으니까 항생제가 처방이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약을 주지? 꼭 먹여야 하나요?"

"그럼 집에 바퀴벌레가 있는데 바퀴 약을 안 치고 사실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기 쉬운 요즘이지만, 여전히 항생제에 대한 이해는 얕고 오해는 깊다.

항생제란 세균을 죽이거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약이다. 우리 몸이 세균에 감염된 상태라면 항생제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가벼운 상기도 감염이나 긁힌 상처 같은 국소적 감염은 항생제 필요 없이 건강한 면역만으로 회복되기도 한다. 우리 몸 안의 백혈구나 여러 항체 같은 면역 시스템이 세균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렴이나 신우신염 같은 심한 감염이나 수술 후 감염, 패혈증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제때 사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꼭 항생제가 필요하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가벼운 감염증인지, 심한 감염증인지 판단할 전문적·병리적 지식이 부족한 이들은 자신의 증상에는 항생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항생제 복용을 중단하거나 피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증상에는 항생제가 필요하다며 병원 방문 시 항생제를 임의로 요구하고, 심지어 상비약으로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약사인 필자도 환자의 증상에 항생제가 필요한지 판단할 지식이나 자격이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항생제 처방은 전적으로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

항생제가 중요한 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고 보관과 복용법에 주의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많은 내용을 모두 정리할 수는 없으니, 무엇보다 항생제를 받을 때에는 약국에서 올바른 보관법과 복용법을 꼭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복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항생제를 먹다가 임의로 중단하면 몸에 감염된 균이 내성균이 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흔한 오해 중 하나가 항생제 내성이 우리 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다행히 이는 사실이 아니다. 즉 항생제 내성은 우리 몸속 세균에 생기는 것이지, 우리 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항생제를 먹다가 증상이 좋아졌다고 중단해 버리면, 약한 세균들은 먼저 죽지만 강한 세균들은 살아남아 항생제에 노출됐던 경험을 학습해 그 항생제에 버티게 된다. 쉽게 말해, 우리가 친절하게도 세균들에게 항생제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셈이다. 살아남은 강한 세균들이 증식하면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유지하고 강화된다. 그리하여 내성균이 다시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이전 먹던 같은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항생제를 먹다가 증상이 다시 심해진 경우에는 다른 종류 항생제를 처방받는 것이다.

내성은 몸 아닌 세균에 생겨
증상 심해지면 다른 약 받아야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것은 환자만의 잘못은 아니다. 심하지 않은 감염이나 세균 감염이 확실하지 않은 증상에 항생제를 잘못 사용해 버리면 그 역시 항생제 내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항생제 복용을 꺼려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생제 오남용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항생제의 오남용은 당연히 주의해야 하지만,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사의 조제와 검수를 거친 항생제는 처방 받은 기간 동안 안심하고 복용해도 좋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항생제 내성은 누구 책임인가? 의사와 약사가 제대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맞다.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다.

예전에는 병원 혹은 약국에서 바로 항생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의약 분업 이후에는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소아 감기 등에서 항생제 처방이 감소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의 통계자료가 있으니 말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항생제 사용량이 줄면서 내성균 발생속도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항생제 내성균 문제는 여전히 큰 사회적 이슈이다. 특히 병원 내 내성 감염균은 계속 증가 추세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항생제 사용관리를 더 체계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항생제의 사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항생제 내성을 줄이고 오남용을 피하기 위한 조언을 요약해 본다.

1. 항생제 처방은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자.

2. 항생제 복용은 꼭 복약지도를 잘 듣고 정해진 용량과 기간을 지키자.

3. 혹시나 주변에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데바닷다' 같은 자일지니 경계하고 멀리하자.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행복'이라는 그늘 아래 깊숙이 자리한 나의 탐욕

어린 시절 부모님 그늘에 있었을 땐 세상 걱정이란 게 없었다.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며 보낸 시간도 나름 행복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에 출가한 나는 지금 어떤가?

처음엔 날마다 행복할 줄 알았다. 또 수행자의 삶 속에선 모든 욕망과 걱정이 사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이내 나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욕망과 탐욕을 마주하게 되었다. 출가 이전에 느꼈던 '행복'이라는 감정은 돌이켜 보면 단지 재물이나 편안함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말한다. "출가하면 행복해질 거야. 수행하면 괴로움이 사라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육, 사회, 환경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재물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존재한다. 늘 만족시키긴 어렵고,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생·노·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을 딛고 행복을 찾고자 애써 왔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정신과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 욕구는 '소유냐 존재냐'의 물음처럼 "그것은 나에게 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집착으로 이어진다. 결국 재화의 획득과 소비는 권력의 수단이 되고, 지나친 탐욕으로 고통을 자초한다.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를 성공의 척도로 삼는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부르지만 정신적 가치, 즉 '행복지수'는 뒷전이 된다. 물질적 성취에만 집착한 결과, 사람들은 끊임없는 결핍과 허무 속에서 방황한다.

불교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한다. 종종 불교는 재물에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받지만, 그것은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을 무시할 때 생기는 오해다. 부처님은 출가자에겐 최소한의 물질과 사무량심[자(慈)·비(悲)·희(喜)·사(捨)] 외 선행(善行), 선법(善法)의 추구에 있는 비물질만을 허용하고, 재가자에겐 정당한 경제 활동을 장려하셨다.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에 따라 얻은 재물로 네 가지 일을 한다." 〈앙굿따라니까야〉

이처럼 부처님은 재가자에게 법답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권하셨다. 특히 바른 획득, 바른 소비, 바른 생활의 방식으로 재물을 취했을 때 비로소 '부를 획득함으로 얻는 행복, 소비함으로 얻는 행복, 부채 없는 행복, 그릇된 행위가 없어 비난받지 않는 행복'인 네 가지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현대인은 이 가르침을 잊고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려는 끝없는 욕망, 탐욕에 사로잡힌다. 물론 탐욕은 주관적이기에 그 경계를 정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재물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정신 차려!" 그러곤 놀란 마음으로 깨닫는다.
"그래도 괜찮아, 지금 알아차렸으니…."
오늘도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내 마음의 세상으로 조심스레 한 발 내디딘다.



현도 스님
한국불교상담학회 특임이사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⑰ 부부학교 ①

부부 간 태도는 세상 대하는 태도

부부가 퇴근해 식사를 하며 하루에 있었던 일을 두런두런 나누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위안이 된다고 한다. 고달팠던 하루의 일과를 나누며, 때론 다독이고 때론 문제를 공유하며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아이들에겐 그 자체로 미쁜 사랑의 모습이리라.

학교에서 이십여 년 근무하며 발견한 것이 있다면, 아이들 모습과 부모의 모습이 참 닮았다는 것이다. 학교를 방문한 부모님의 교양 있는 말투와 행동이 아이의 모습과 매치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 집안에서의 부모님 모습일 것이다.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갑작스레 이상행동을 보인다면 그건 지금 집안에 무슨 큰일이 있었다는 신호일 것이다. 부모님을 낙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이들은 부모님의 숨길 수 없는 거울이라는 말이다.

퇴임 후 하고 싶은 사업 중에 부부학교가 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지 결혼 전 꼭 들어야 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부부학교는 결국 부모학교가 될 테다. 부부의 모습이 곧 아이들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육, 돌봄, 교육, 이 모두는 결국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삶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어느 한 노교수가 듬직한 제자 둘을 중매하려고 나섰다. 번듯한 직장의 남제자를 평소 예쁘게 여겼던 여제자에게 소개했다. 근데 여제자는 한 번 만난 이후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했다. 외모면 외모, 매너면 매너, 집안이면 집안,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남제자인데 왜 그러는지 통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나중에 건너 듣기로는 밥을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를 평생 들을 자신이 없었다고 한다.

부부 모습이 곧 아이들 모습될 것
긍정자원 없으면 화 내고 남 무시
의사소통 안 되면 행복할 수 없어

부부가 서로 꼴도 보기 싫어 당장 헤어지고 싶은 이유는 상대가 쩝쩝거리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달래고 설득하고 화를 내봐도 조금도 바뀌지 않는 모습에 이제는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쩝쩝 소리가 된 것이다. 아이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마저도 헤어지지 못한다면, 늘 고통스럽게 쩝쩝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평생 신세 한탄을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배우자가 예쁘고 잘생기고 돈이 많아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가끔 천변을 산책하다 보면 치와와처럼 작은 강아지가 큰 강아지를 보고 사정없이 짖어댄다. 신통력으로 작은 강아지의 마음을 읽어 보면, 큰 강아지가 먼저 자기를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그런다고 한다. 먼저 안 건드리면 자기도 절대 짖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큰 강아지는 그냥 길을 갈 뿐이었다. 어떤 강아지가 하도 요란스럽게 짖어대서 소리 나는 곳을 한번 쳐다봤을 뿐이다.

여기서 강아지의 크기는 내면의 긍정자원과 같다. 긍정자원이 없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내며 남을 무시하는 것이다. 나이, 학력, 직업과도 상관이 없다.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레 겁이 나서 그러는 것이다. 긍정자원은커녕 빚처럼 온통 부정자원이 가득해서 거꾸로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치를 알면, 상대로 향했던 분노가 연민으로 바뀔 수 있다. 듣기 싫은 '쩝쩝' 소리가 최소한 '남남'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바뀔 수 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명상은 삶의 방식입니다

부산 송정해수욕장에 색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서퍼들이 파도를 타는 동안 그 옆에서는 시민들과 군 장병, 청년들이 눈을 감은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2025 부산 글로벌 명상 문화 페스티벌'의 개막 현장이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 부산명상협회가 주최한 이 페스티벌은 명상을 도심 한가운데, 삶의 한복판으로 끌어낸 기획이었다. 이 행사는 명상이 더 이상 특정 장소나 일부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줬다.

서핑과 명상은 닮아 있다. 파도가 멈추지 않듯, 삶의 흐름 또한 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흐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힘. 그 기술이 서핑이고, 명상이다.

주석 스님이 "호흡 하나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해변이라는 열린 공간, 바다라는 역동적 배경 속에서 시민들은 정적인 수행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명상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조계종 미래본부의 '하루 5분 선명상' 캠페인을 함께 펼치며 '생활 속 명상 실천법'을 제시하고 명상이 일회성이 아닌 습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한 점도 눈에 띈다. 명상은 더 이상 나이와 종교, 환경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장병들에게 "졸림조차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억지로 참기보다 '잠깐 멈춤'으로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길"이라는 주석 스님의 말은 오늘날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다.

명상은 더 이상 '비워내는 고요함'만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혼잡한 삶 속에서 멈출 수 있는 용기, 지속 가능한 마음의 중심 찾기에 가깝다. 이번 행사가 보여 준 것은 그런 명상의 본질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실현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한여름의 해변에서, 파도 소리 위에 얹힌 호흡 하나가 던진 메시지. 명상은 단지 수행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자 일상의 태도임을 확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한국학 에세이 (본) 매주 (화) 07:30 (재) 매주 (화) 19:30 / (토) 12:00
광우스님의 소나무 (본) 매주 (목)07:30 (재) 매주 (목) 19:30 / (일) 19:00
법장스님의 Together 투게더 (본) 매주 (금)07:30 (재) 매주 (금) 16:00 / (일) 23:15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매주 (금) 08:30 (재) 매주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윤달과 생전예수재 공덕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올해는 7월에 윤달이 든다. 윤달은 음력에서 실제 계절 변화와 달력의 날짜를 맞추기 위해 추가되는 달이다. 옛 풍속에 평년보다 한 달이 더 있다고 하여 '공달(空月)'이라 불렀으며 민간에서는 '썩은 달'이라고 하여, "하늘과 땅의 신(神)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으로 그때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무슨 일을 해도 손을 타거나 부정을 타지 않는 달로 여겨 평상시 신의 노여움이 두려워 행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윤달에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사나 혼례, 수의(壽衣) 짓기, 조상의 묘 이장하기 등의 풍속이 윤달에 하면 탈이 없다는 민간 신앙이 있다.

불교에도 전국 사찰에서는 윤달에 '생전예수재'라는 공덕 닦는 의례를 봉행한다. 생전예수재는 사후에 후손이나 타자가 망자를 위해 올리는 사십구재를, 생전에 '나의 사후 칠칠재'를 스스로 닦는 의례이다. 사후의 칠칠재가 특정 망자를 위해서 행해지듯이 생전예수재도 특정한 재자를 위해 행해지는 의례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홀로 행하는 생전예수재가 많은 이들의 동참 아래 봉행되고 있다. 오늘날의 이 같은 신행 양상이 등장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간혹 생전예수재를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생

윤7월 '생전예수재' 봉행 잇달아
스스로 먼저 공덕 닦은 의미
예수재 동참해 작은 공덕 쌓길

전예수재를 하면서 '전생의 빚을 갚는다, 명부전을 만든다'라고 하니 중세 서양의 면죄부 장사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의심이다. 면죄부와 같다고 보는 것은 그 상징성과 신행의 의미를 바로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오해는 해소될 수 있다.

생전예수재에는 전생에 진 빚을 갚는다고 하는 의식과 사상이 있다. 그런데 그 빚이 별다른 것이 아니고, 경전 몇 권과 명부전 몇 관이라고 한다. 경전은 〈금강경〉, 〈수생경(壽生經)〉 등인데 이 경전은 수명의 늘어남을 바라는 마음에서 염송한다. 빚은 종이로 돈을 만들어 그것을 명부전으로 환전한다고 하는 독특한 종교적 의례 행위로 행해지는데, 명부의 빚을 갚는 의례행위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금강경〉 염송과 저승 빚 갚는다는 의례로 종이돈 만들고 저승 돈으로 환전하는 의례 행위로 구현된다. 이것은 경전을 염송하여 깨달음을 얻고 빚는 갚는다는 형식으로 재물을 보시하여 공덕을 짓게 하는 방편의 의례이다.

생전예수재나 사후칠칠재 모두 저승의 세계인 명부 십대왕의 심판을 받는 형식이다. 그런데 명부 십대왕은 명계 시방의 왕이라는 의미로, 중생들이 십악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상징화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생전예수재는 선한 업을 행해서 공덕을 쌓고 경전을 염송하여 깨침을 얻도록 하고자 시설됐다. 특정인이 홀로 봉행하던 생전예수재를 공달인 윤달에 대중이 함께 십선업으로 공덕을 닦아 소원을 이루도록 하게 하는 저변에는 한국불교도가 빚어낸 생활의 지혜가 터하고 있다.

더위 속에서 윤달의 생전예수재에 참여해 작은 공덕이라도 짓는 것은 어떨까.

관용의 정치가 필요하다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계엄의 파고를 넘어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 한 달이 지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과 사회통합을 강조하면서,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실용적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합은 '관용'이라는 가치의 기반에서 출발한다. 관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이 가는 길이다. 근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관용의 덕목은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다. 17세기 서구에서 종교 분쟁의 폐해로 인해 정치적 안정이 붕괴되고 증오와 폭력이 난무했을 때 당시의 많은 사상가가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미국 헌법 등에서 관용은 민주주의 원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볼테르(Voltaire)는 "나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죽을 때까지 변호할 것"이라고 말한다.

관용에 대해 가장 치열한 지지의 웅변을 한 사상가는 존 슈튜어드 밀(J.S. Meal)이다. 그는 유명한 〈자유론〉에서 관용은 사회의 지적인 진보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며, 개인의 도덕적 정신적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관용은 자비 윤리의 틀에서 보면 설명이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덕목이다. 자비는 '포괄성'이 매우 높은 가치이다. 붓다의 정치관은 관용을 바탕으로 한다. 강대국인 마가다국의 왕이 약소국인

사회통합 강조한 이재명 정부
관용, 민주주의 생명선과 같아
통합 위한 불자들 책무 상기를

밧지국을 침략하는 것을 저지하는 내용인 〈유행경〉의 '칠불쇠법'을 보면 바로 관용의 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관용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관용이 부도덕하고 건전하지 못한 행위와 신념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응집력과 개인적 미덕을 파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비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있다. 자비는 희생의 윤리에 불과하며 부정의의 만연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달라이라마는 저서 〈종교를 넘어〉에서 자비는 결코 잘못된 행동이나 부당함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통해 더 큰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자비는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용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분법과 구분심은 인간의 뇌를 편안하게 한다. 그리고 미움과 분노는 감역력이 높다. 더구나 권력이라는 먹잇감을 두고 쟁투하는 정치의 마당에서 관용의 정치를 구현한다는 것은 큰 지혜와 이보다 더 큰 용기가 있어야 한다.

관용은 '시지프 신화'에 나오는 바위이다. 시지프가 바위를 포기할 때 시지프는 죽는다. 관용은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관용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죽는다. 실패하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관용의 정치이다.

민주주의 핵심은 'by the people'에 있다. 정치의 판가름 판에서 춤을 추는 광대가 되지 말고 관용의 정치 문화를 만들고, 이를 정치의 마당에서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격랑의 파고 속에 난파당할 위험도 커질 것이다. 통합은 모두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면서 함께 걷는 길이다. 어느 때보다 관용의 정치 문화를 구현하는 지혜와 방편이 절실하다. 국민 통합을 위한 불교도의 책무가 빙벽처럼 앞에 있다.

社 說

'문명화' 논리로 세계유산 등재 가능할까

최근 8개 지방자치단체가 근대 기독교 선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해당 유산이 특정 종교의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유네스코가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독교 선교기지 세계유산화의 논리에는 근대화와 계몽의 서사가 반복된다. 이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서구 열강이 앞세운 '문명화(mission civilisatrice)' 담론의 연장선에 있다. 또한 '문명화'라는 명목으로 불교·유교·무속 등 기존 전통신앙에 대한 폄하와 배제가 이뤄진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광복 직후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했던 기독교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기독교 편향 정책의 영향이다. 정책·제도적 배경과 이해 없이 근현대화의 주요 동력으로 기독교 전래를 꼽는 것은 '근대화=기독교'라는 단선적 역사관을 고착시킬 우려가 크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세운 병원, 학교 등이 공공적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보편적 가치'의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단지 '역사적 건축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과 공공성을 갖춘 유산에 부여되는 지위다. 철 지난 '문명화' 논리로, 과연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할지 묻고 싶다.

진관사 태극기 국보 승격을 기대한다

2009년 서울 진관사 칠성각 불단에서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와 관련 유물은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 정신과 진관사의 항일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항일의 뜻을 담아 일장기 위에 태극을 새긴 제작 방식, 실제 독립운동 현장에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 독립신문 류 등의 귀중한 자료를 감싸고 있었던 점, 사찰 불단 깊숙이 숨겨져 있다 100여 년 만에 발견된 과정 등은 '진관사 태극기'가 우리의 극적인 역사를 품은 상징적인 존재임을 보여준다.

'진관사 태극기'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태극기이고, 불교 사찰이 독립운동의 거점지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는 역사성이 인정돼 2010년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이러한 '진관사 태극기'의 역사적·학술적·정신적 가치를 올바르게 새기고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국보 승격과 '태극기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교계와 학계에서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6월 29일 진관사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는 '진관사 태극기'에 담긴 정신을 기리고 불교계 독립운동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 국보 승격과 전문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진관사 태극기'에 담긴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책무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진관사 태극기'의 국보 승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7월 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7월 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7월 9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마치 아무것도 신지 않은 것처럼,
땅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다.

이제, 당신의 발에도 진정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메쉬 어싱(접지) 수행화

자연과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 지금 바로 느껴보세요!



특징 1 **뛰어난 통기성의 메쉬 소재** – 발이 숨 쉬는 듯한 쾌적함

특징 2 **맨발에 가까운 편안함** – 놀랍도록 가볍고 유연한 착화감

특징 3 **자연 통풍 구조** – 쾌적함을 극대화하는 설계

특징 4 **세련된 디자인** – 그레이 색상과 다크 그레이 솔의 조화

특별혜택

지금 구매하시면,

정가 80,000원 ⇒ **특별 할인가 65,000원**

어싱 효과를 더욱 높여줄 '어싱 양말'을 사은품으로 함께 드립니다!
(사이즈 : 225mm~280mm, 색상 : 미들 그레이)

하루 종일 답답한 신발 속에 갇혀 있던
당신의 발을 해방하세요.

'메쉬 어싱 수행화'는 맨발로 걷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발을 감싸는 부드러운 메쉬 소재는 뛰어난 통기성으로 언제나 쾌적함을 유지해주며,
놀랍도록 가벼운 무게는 당신의 발걸음을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땅과 나를 연결하는 '어싱(Earthing)' 기술로, 걷는 내내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1 벨크로 타입으로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 맨발로 걷는 느낌을 최대한 주는 3mm의 탄력있는 밑창으로 발 건강을 향상 시킵니다.
3 어싱 신발에는 가죽 인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발 감각에 익숙치 않은 분을 위한 것이니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45,000원 (무료배송)

사계절용(생활방수)

※ 사은품 : 어싱 양말

지금 바로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www.mahamall.co.kr

검색창에 '메쉬 어싱 수행화'를 검색하세요!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어싱 샤모아



특판가 80,000원

사계절용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